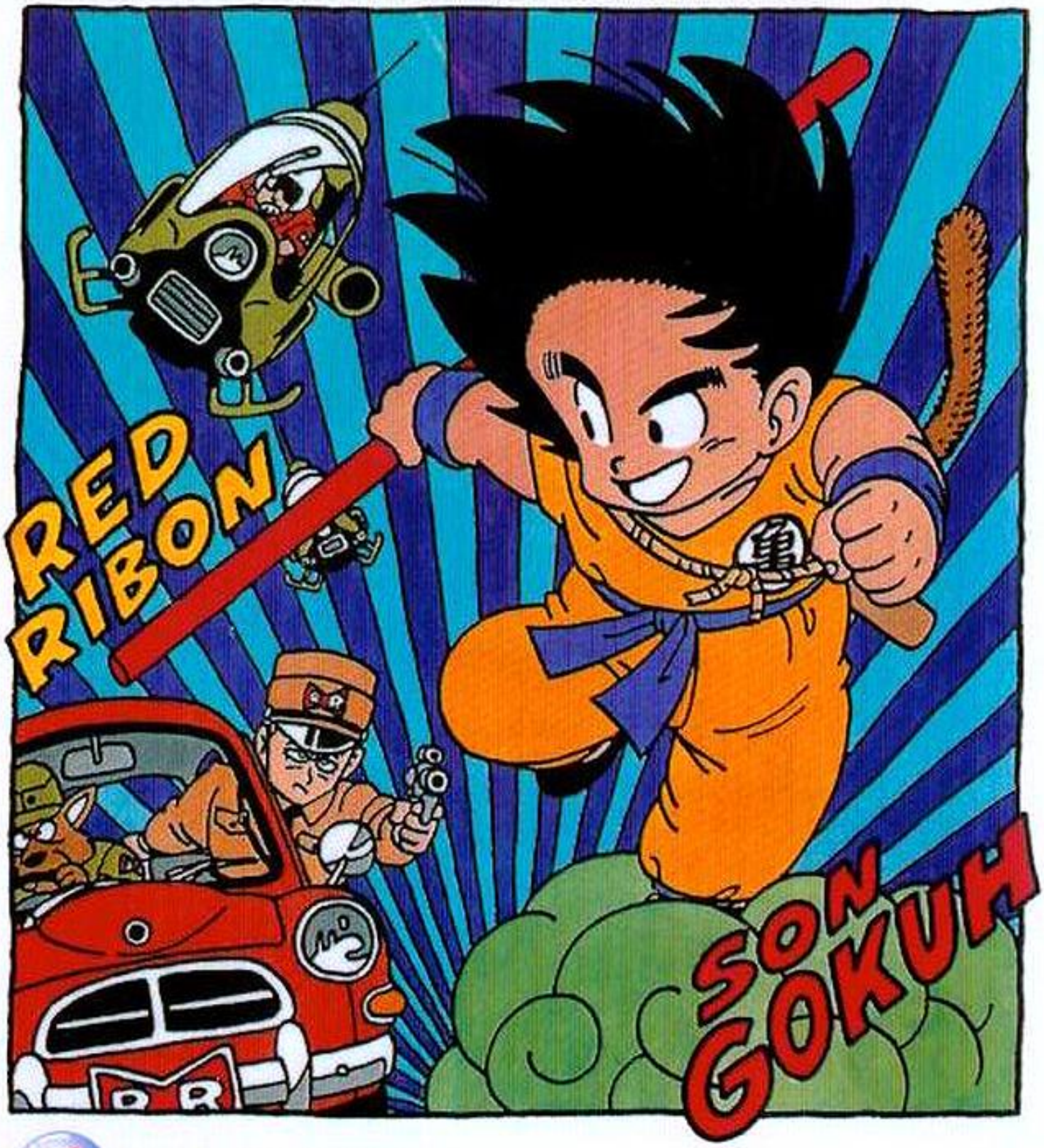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6 부르마의 대 실패!!

canned by rapr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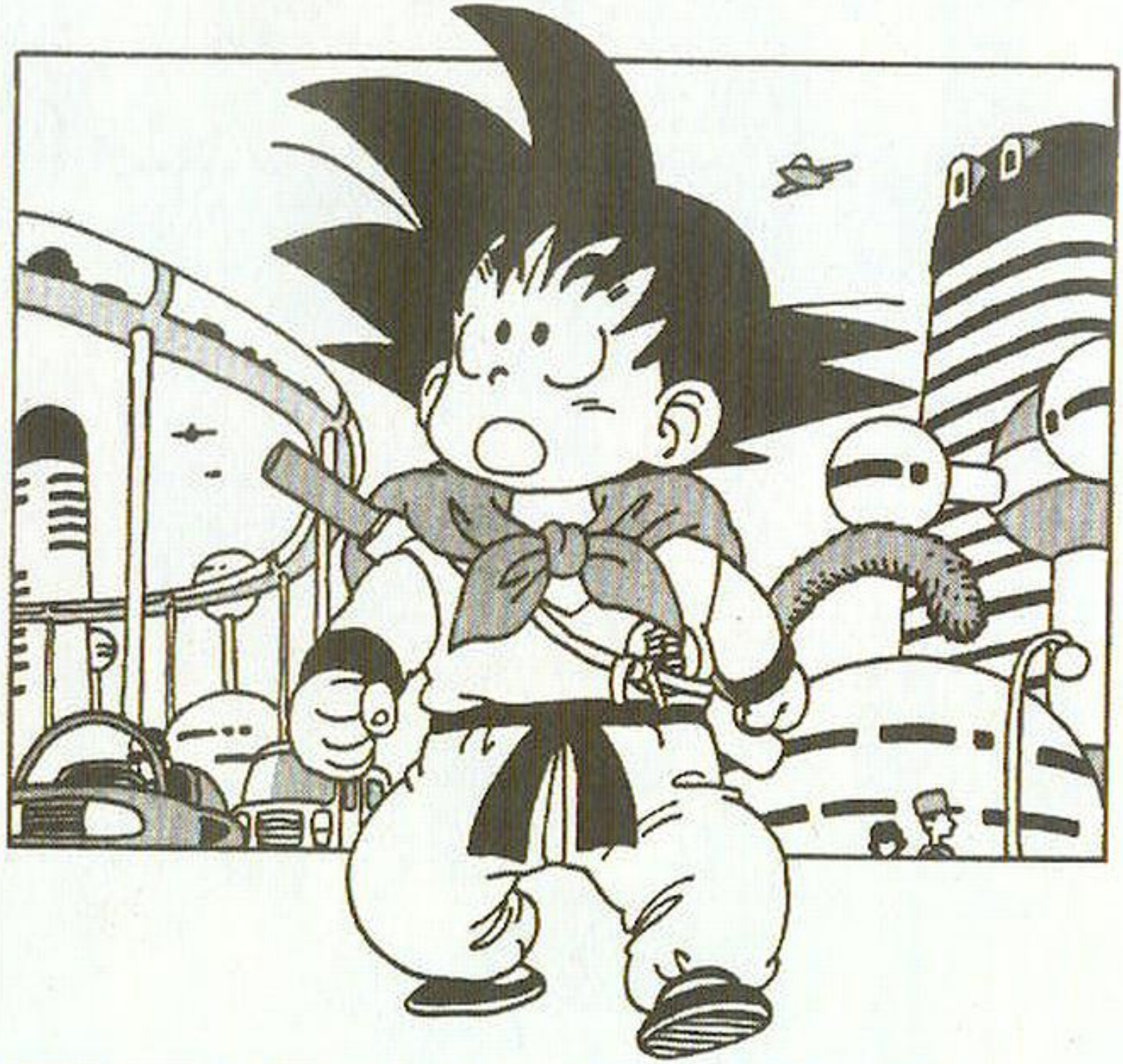
DRAGON BALL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요즘 우리집 근처도 상당히 번화해졌다. 여러 가지 가게나 도로가 생겨서 매우 편리하긴 하지만, 족제비나 꿩, 휘파람새 등의 동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리도 증가했습니다. 원래 시골 촌놈인 저는, 여유롭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성격에 맞는 것 같다.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원래는 시골에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a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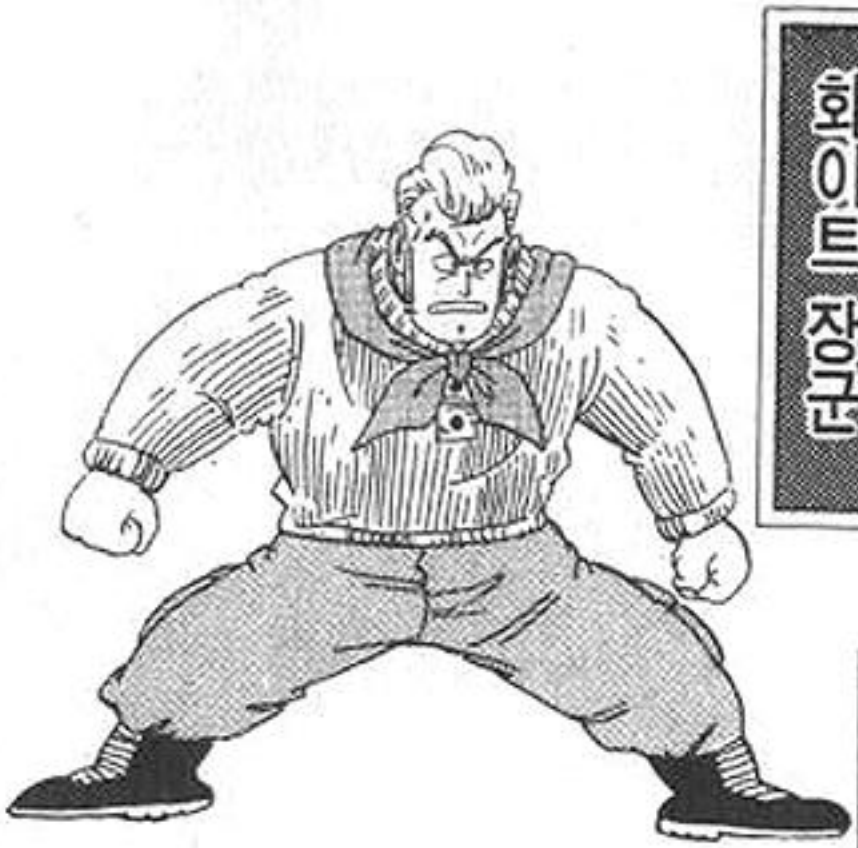
제6편 부르마의 대 실패!!

AKIRA TORIYAMA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부르마와 손오공은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준다는 신기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었다. 대 모험 끝에 겨우겨우 모든 구슬을 모았지만, 악인 피라후에게 뺏겨버린다. 오공과 친구들은 드래곤 볼이 나쁜 곳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 여자 팬티라고 하는 보잘 것 없는 소원을 먼저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기간을 이용해 오공은 거북신선의 제자로 들어가서,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출전한다. 결승전에서는 아깝게도 패해버리지만, 준우승을 거머쥐고,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DRAGON BALL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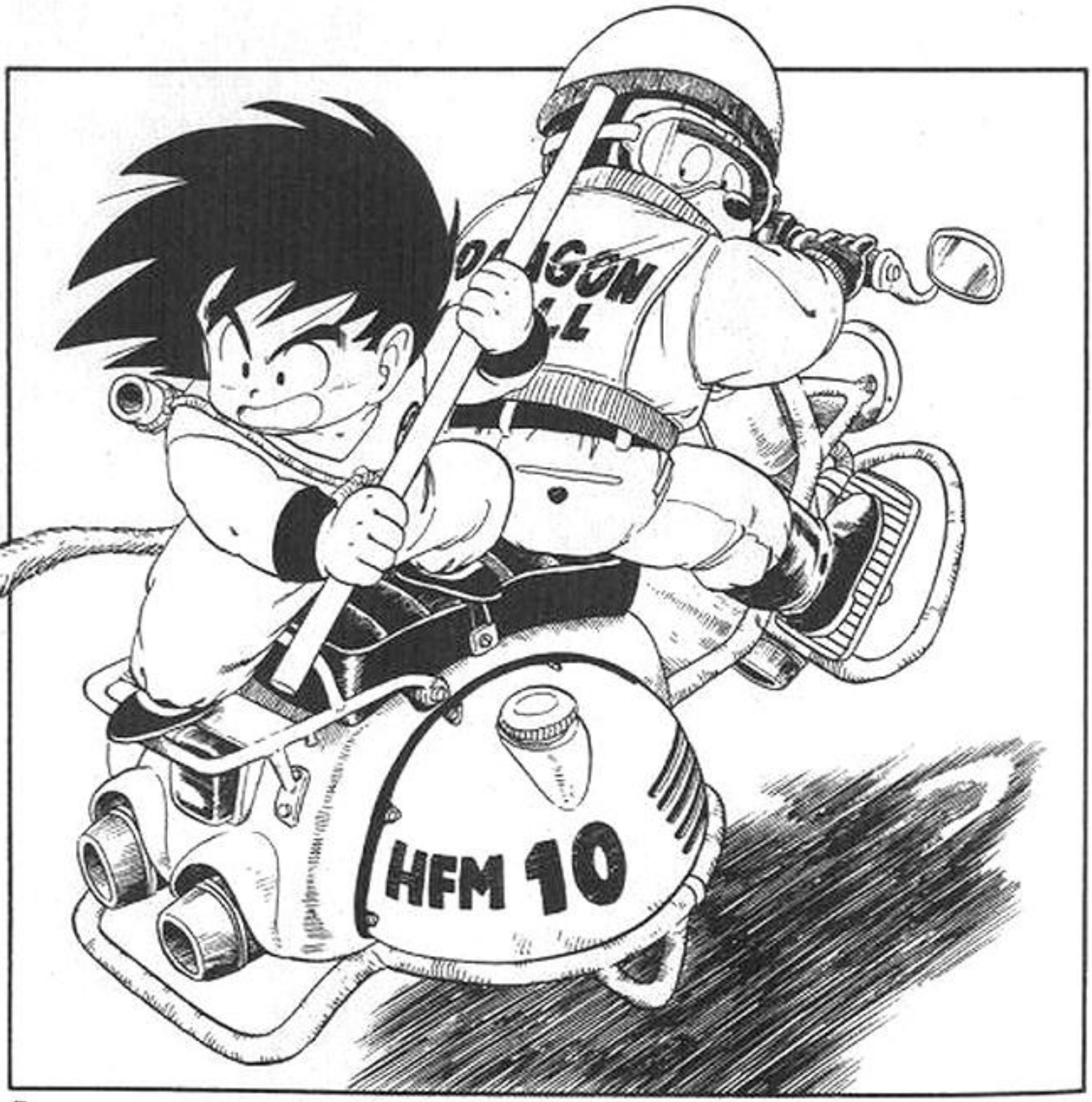
부르마의 대 실패!!



제61화 닌자 장판 방어술!! ····· 7
제62화 위기! 분신술 ····· 22
제63화 인조인간 8호 ····· 38
제64화 5층 전율의 괴물 ····· 52
제65화 포동이 공략법 ····· 66
제66화 머슬타워의 최후!! ····· 80
제67화 서쪽으로… ····· 94
제68화 서쪽 도시의 부르마네 집 ····· 108
제69화 부르마와 오공. Part 2 ····· 122
제70화 부르마의 대 실패!! ····· 136
제71화 거북하우스를 찾아라!! ····· 152
제72화 블루 장군 공격 개시 ····· 166
표지 페이지 대특집 V ····· 181

DRAGON BALL

제61화
닌자 장판 방어술!!



탑 맨 꼭대기에 갇혀있는
촌장을 구출해내고자
레드리본 군의 머슬타워
안으로 쳐들어간 오공!!
4층에 있는 닌자
무라사끼의 공격을
격퇴하라!!

무라사끼
상사!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당장
그 꼬마를
처치해
버리란
말야!

예!
화이트
장군님!

그럼
즉시!!

어린애
장난은
이제
끝났다,
꼬맹아….

지금부턴
진짜야!

좋아!

웃기지 마!
내가 왜 죽어!

후후후…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산산조각을
내버리겠다!

이 건방진 녀석…!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우오옷!!

파야


좋아!!
탁
죽어라!!



삭
뿌뿌
끼악!!
으아악!!!
아야! 아야!
흐으윽!!
하하하! 너도 나처럼 엉덩이에 꼬리가 났구나!


빼 줄게!
뽕
우옷!!
요런 황당한 쪽팔림을…! 가만두지 않겠다!
와하하하하하
엄마!
으윽!
이야얍!!
쾅


파팟
이이윽!!
헤헤헤.
푸핫!!
뛰뚱
이번엔 내 차례다!
착
얍!!
받아랏!!
으왓!?
창
창



챙 강!!
요옵
내가 아끼고 아끼던 명검 「사사니 시키」가!!
으왓!
이래도 계속 덤빌 테냐?
내 여의봉 보다 강한 건 없다!
호오! 제법인걸
좋아. 그럼 맨손으로 겨뤄보자.
맨손? 그거 좋지!
오호…! 자신있다 이거냐?

!!

진짜는 이거다!!

퍽

퍽

퍽


멍청한 녀석!
사느냐 죽느냐 하는 승부에서 치사고 뻥이고 있을 턱이 있냐!?
뭐?
빙그르르.....
듣고보니 맞는 말 같다.
히죽!
빙그르르...
!?
떡
역


휙
후후훗…!
부메랑
수리검이다.




으윽…
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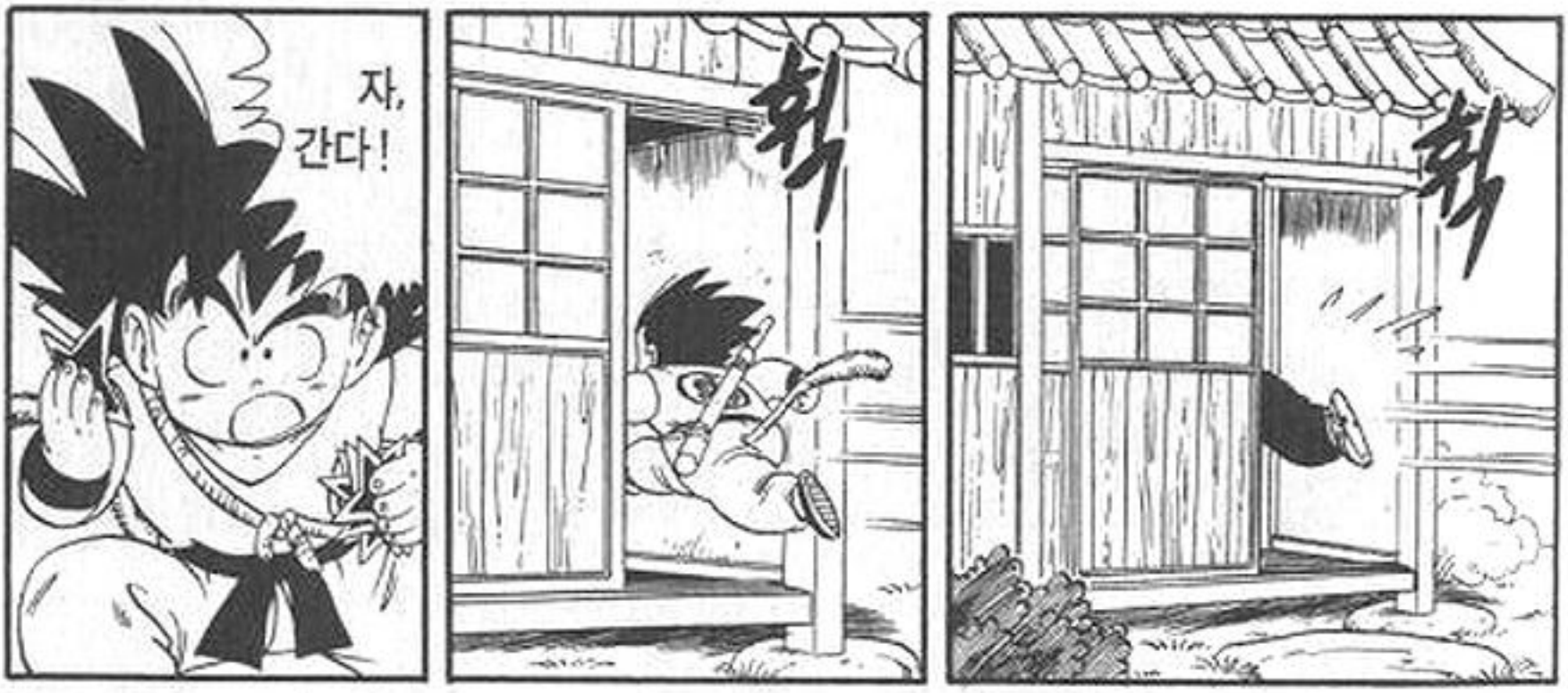

아주 잘했다,
무라사끼
상사!
멋지죠,
화이트
장군님!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


너무 아프잖아!!
앰마!!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 혹시 머리가 돌 아니니? 다이아몬드나….
까불지 마!!
으와악!
에잇!!
사삭
사삭
파팍
파파팍
삭
정 그렇다면 나도….




자,
간다!
휙
휙


조옿~아!!
던질 테면
던져봐!
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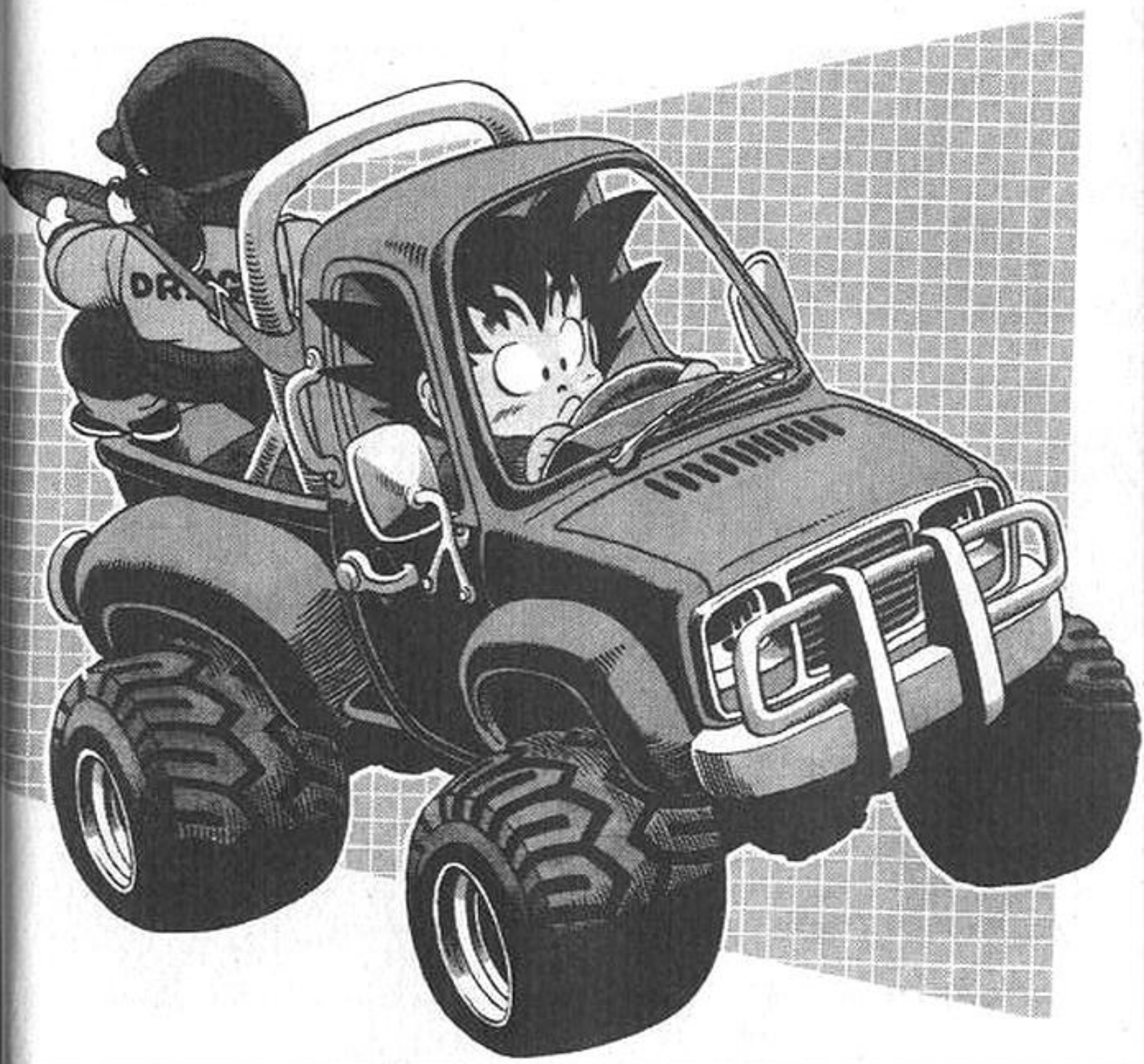

타
탁
이얏!!
휙
하하핫! 잘 봤지? 이 무라사끼의 멋진 닌자 장판 방어술을!!
앗!?
탁
휙
하압!!
탁
휙
으랏차!
탁
휙
호옵!



푸하하하! 어때? 죽여주지!?
와!
흐엑!!
슛
장판이 좀 부족했네….
1장만 더 있었으면 방어할 수 있었는데….
이 녀석…. 이제 널 반드시 쓰러뜨리고야 말겠다.
아찌도 꽤 강하긴 한데?
퍽
윽!!

DRAGON BALL

제62화 위기! 분신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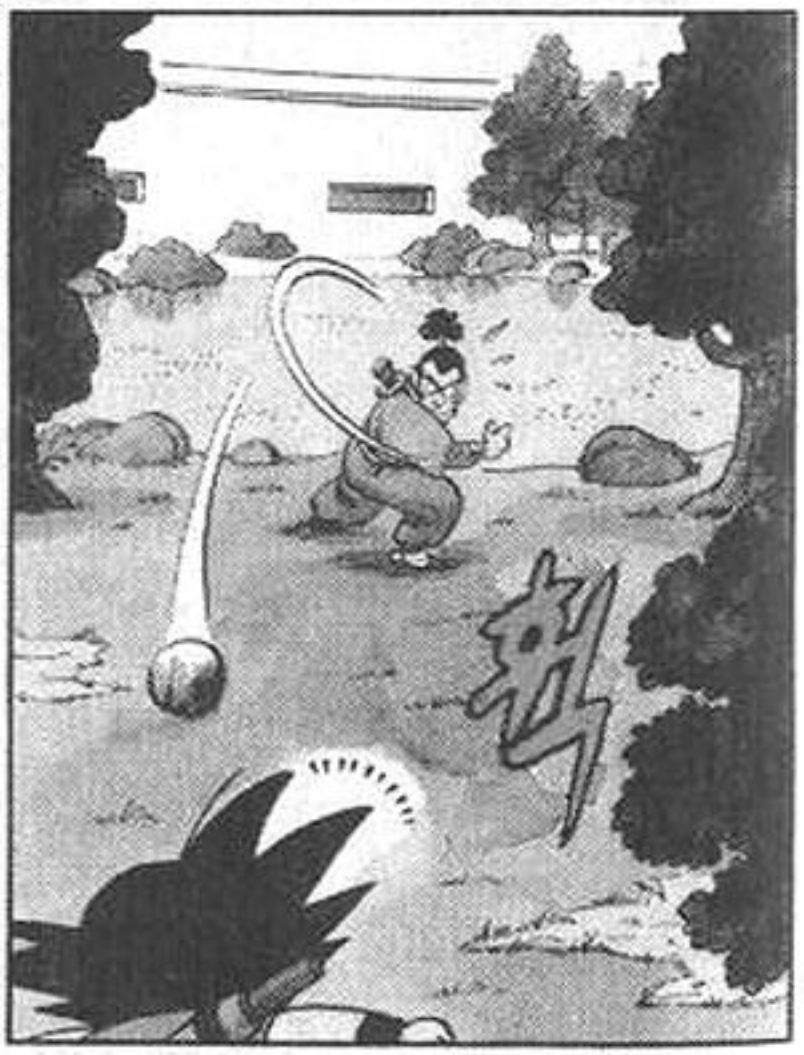


제, 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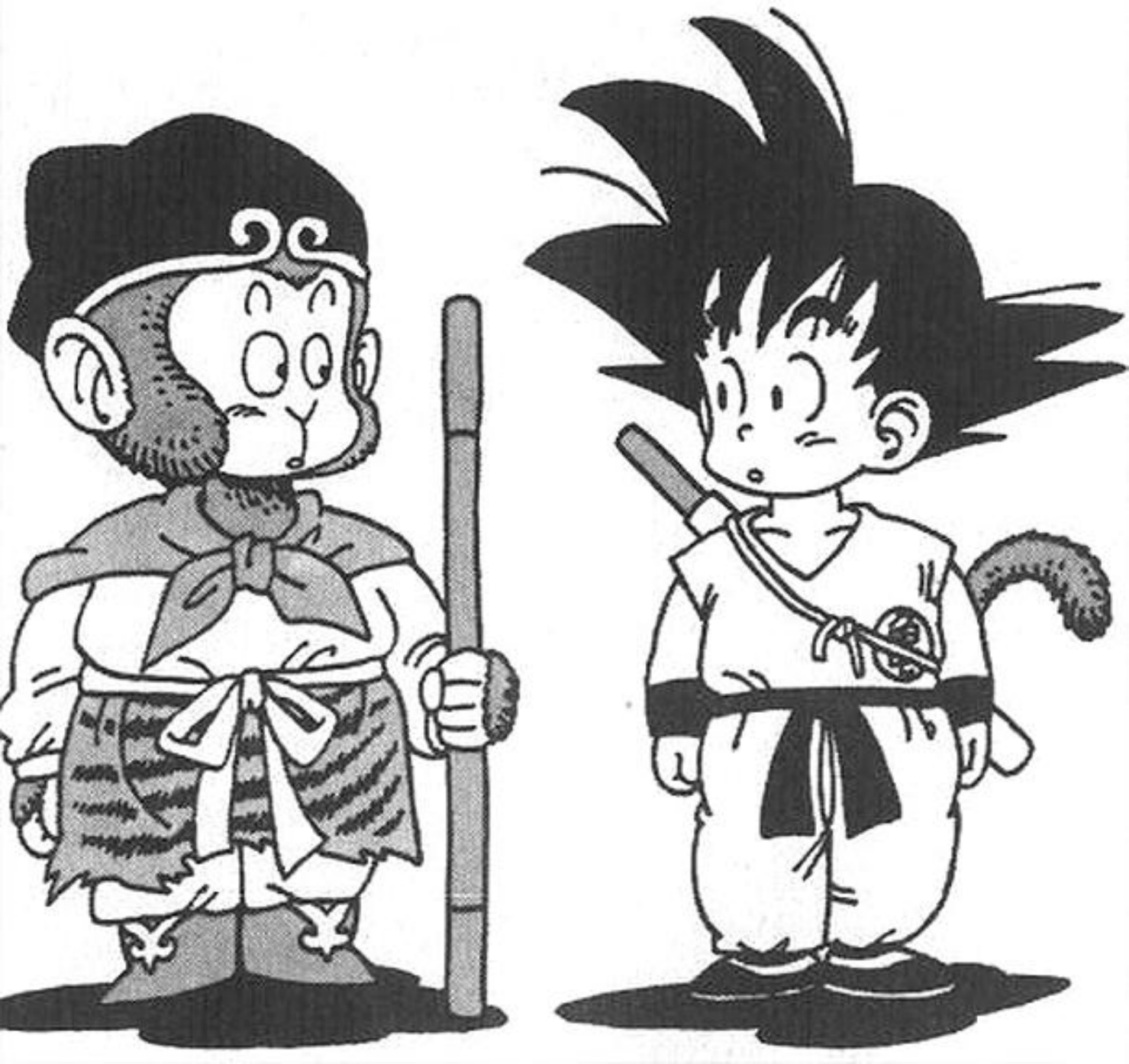
거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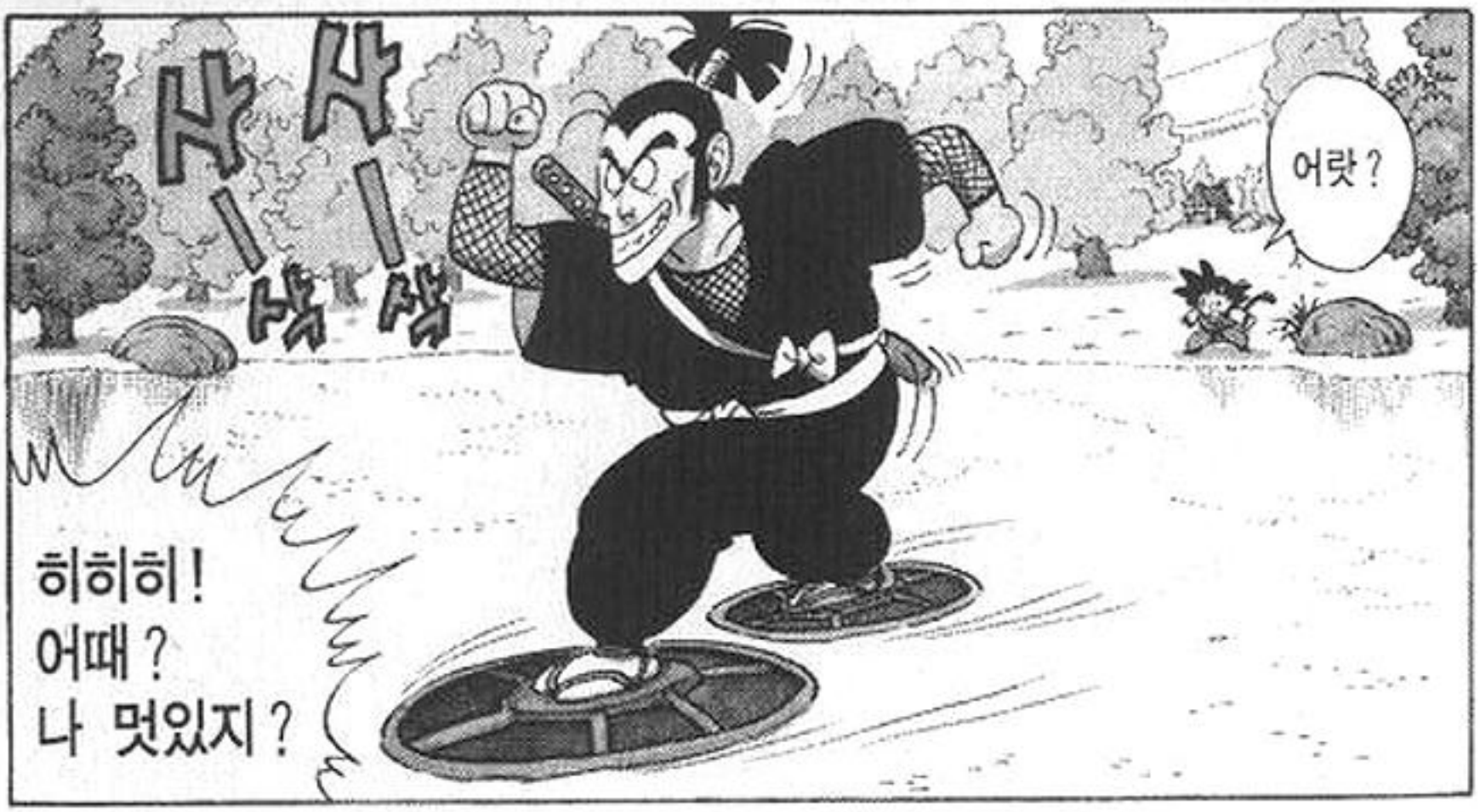









엥!?


샤샤샥
어랏?
히히히!
어때?
나 멋있지?


그까짓 거
건너는 거야
식은 죽
먹기다.
웃기
시네.


이게
소금쟁이
기술이다!
어때?
자신 있으면
날 쫓아와
보시지!


이 인공 강에는
식인 물고기
피라니아가
살고 있다!
헹—!
헤엄이라도
칠 수 있으면
와 봐!



메롱! 메롱!
약 오르지?
헤엄칠 필요도 없는걸?
타다닥
엇!?
!!


웃!
싸울 테냐,
아님
항복할 테냐?


호, 혹시
너…,
개구리냐?
안녕!


훠이~악


내가
너 따위한테
항복할 것
같애?
이 멍청한
녀석!


이 무라사끼 님의
주특기
기술을
보여주겠다!


삐이이
그건 또
뭐냐?

분신술!!

이야압!!

어랏!?

엉?!

후하하핫!!

아니…. 이럴 수가….

누가 진짠지 모를걸?

어떠냐, 꼬마야!

두리번

두리번

엉? 엉?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대… 대단한
기술이다…!

모두
진짜처럼
보이네…!

으왓!!

이젠
얌전히
가거라!

네가
진짜구나!

웃지!!


탁
이야앗!!
!!
큰일날 뻔했다…!
이, 이쪽이 진짜였나?
쳇! 잘도 피했군!
이 녀석!!
탕탕
잇!?
창
창

전부
진짜처럼
보이네… !!

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

하지만
당연한 사실!
전부 진짜거든!!

푸하하핫!
이상할
거다!

타타탁…

뭐!?

원래
우리들은
다섯 쌍둥이
닌자
였걸랑!!

짜—안
!!

갑자기 다섯 명으로 불어났으니 더 무섭지? 이제 얌전히 저승으로 가렴, 꼬맹아!

후후후…. 한명 상대하기도 힘든데….

좋아!

탁 탁

그래, 전부 진짜였단 말이지.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잘도 지껄이고 있군. 내가 언제 무서워했어?

이젠 각오해라!!

자,
와라!!

이얍!

휘악

쉬악

타탁

엉!?


진짠
여기다
팡
쭉
퍽
익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으와!
풀썩...

녀석은 진짜 분신술을 쓸 수 있어!

방심하지 마라!

어, 엄마! 얘기나 빨리 해주지….

……

이익…

혼자가 되셨군!

다시….

괴장한 스피드와 파워다…!!

으…. 으아…!

휙

제길!!













다음은, 제63화 인조인간 8호

휘이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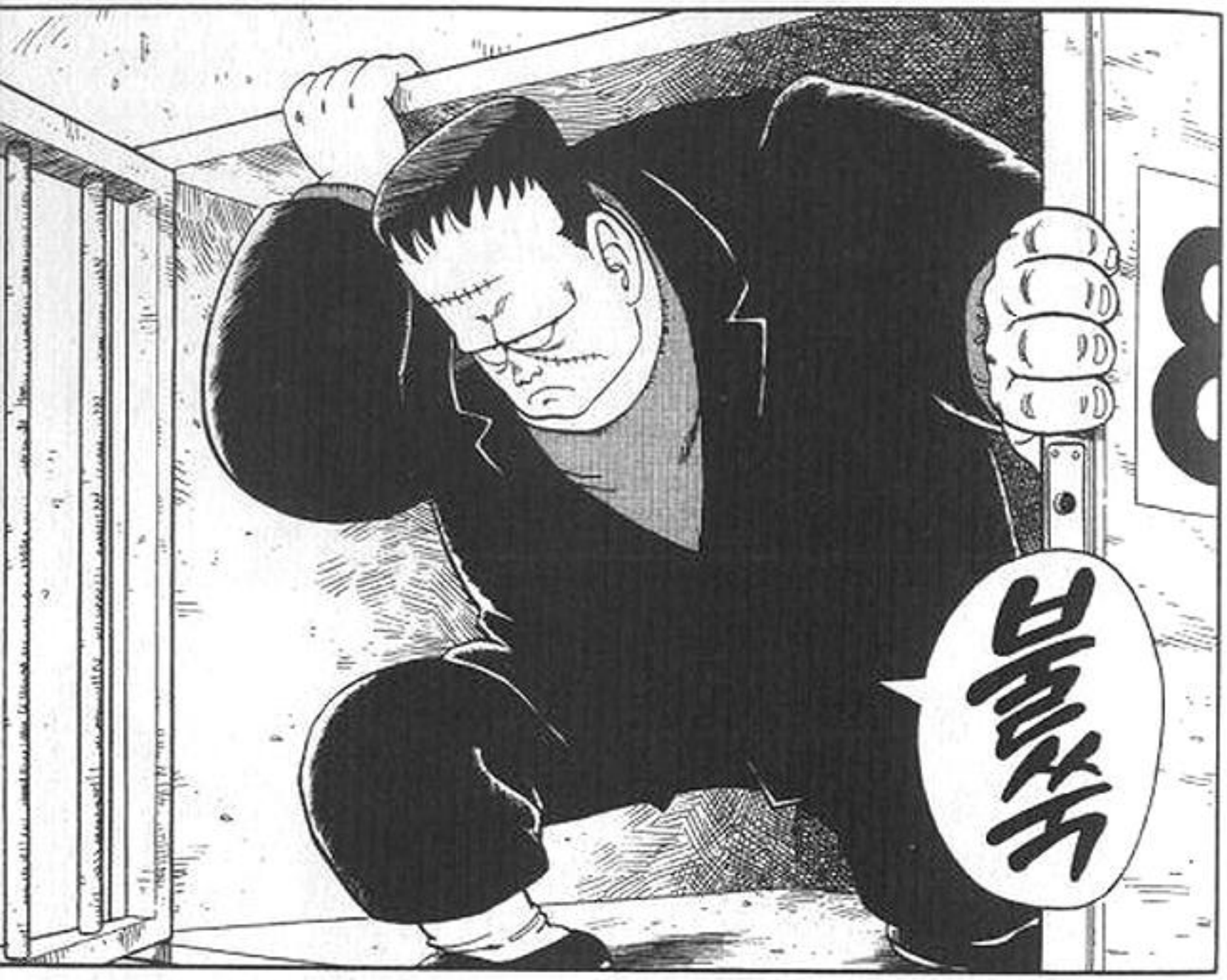
머슬타워 4층에 있는 닌자 무라사끼를
압도적인 파워로 물리친 오공!!
그러나 4층과 맨 윗층 사이에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인조인간 8호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꽈아…안

나와,
인조인간
8호!
이 녀석을
혼내주라구!

끼이이

엇?


8
불쌍


으와아!
무식하게
크다….
크하하하!
얘가 얼마나
무서운지 넌
모르지?

싫어.

엥?

자, 가라! 가서 저 녀석을 혼내주는 거야!

서…, 설마 지금 싫다고 한 건 아니겠지?

뭐, 뭐라고?

난 나쁜 짓은 싫어.

생명체를 죽이는 건 안 좋아.

멍……청

무슨 바보 같은 소릴 하는 거야!

드디어 네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단 말야!

난 너희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촌장을 인질로 잡아놓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잖아.

우린 널 낳아준 부모야, 부모!! 부모 말을 들어야지!!

무슨 건방진 소리야! 널 만들어준 게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이런 돼먹지 못한 겁쟁이 녀석!!

못해…. 미안하지만 나쁜 짓은 싫어….

뭐라고 !?

그래? 그렇담 좋은 방법이 있지!

네 몸 속에는 만약을 위해 만들어논 폭탄이 들어있다!

인조인간 8호! 잘 들어!

내가 이 리모콘 스위치를 누르면 넌 산산조각이 나는 거야! 알지?

그게 싫으면 빨리 내 말 들어! 알겠나?

……

……

난
나쁜 짓은
할 수
없어.

누가
뭐라
해도….

뭐,
뭐…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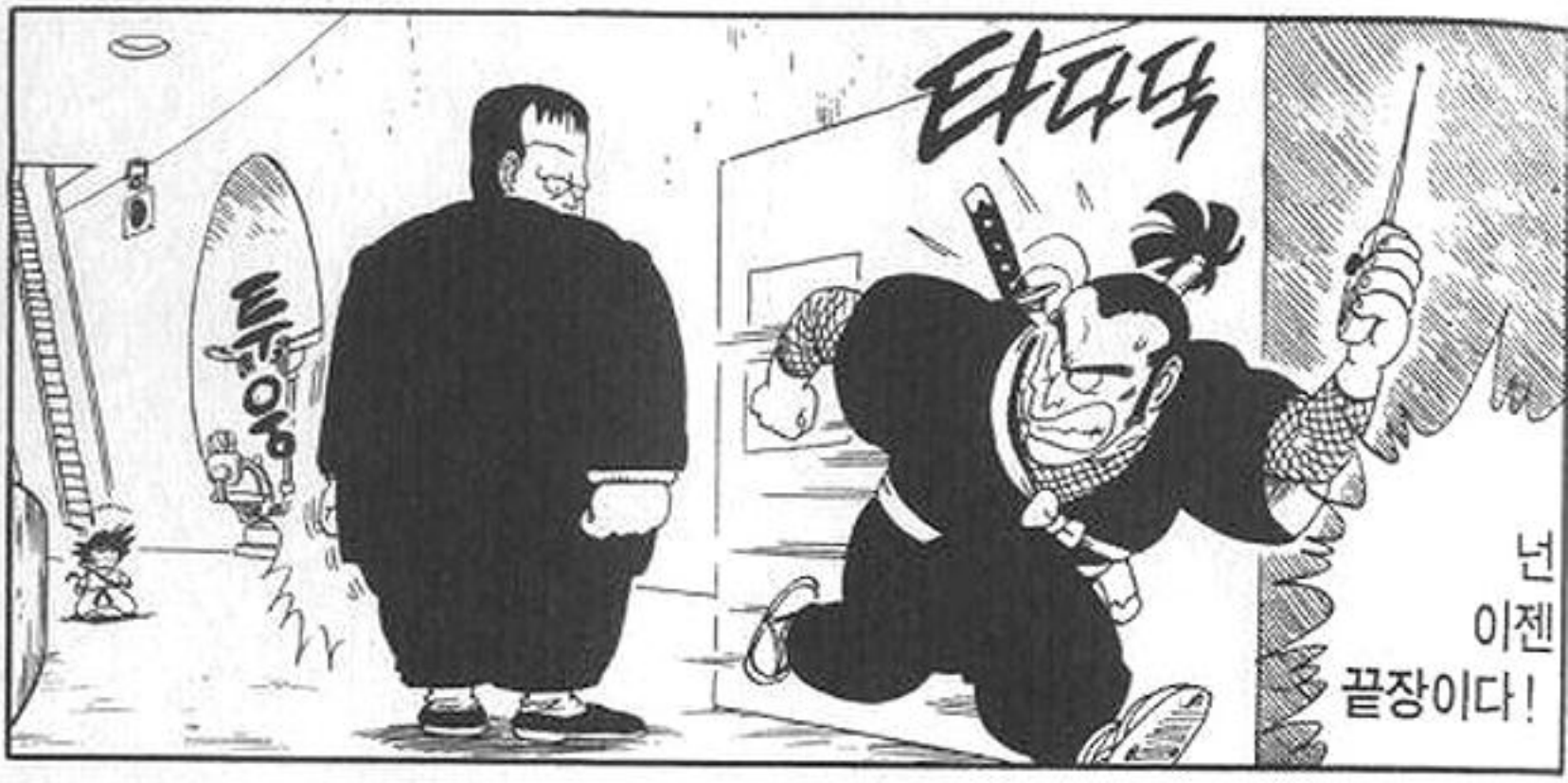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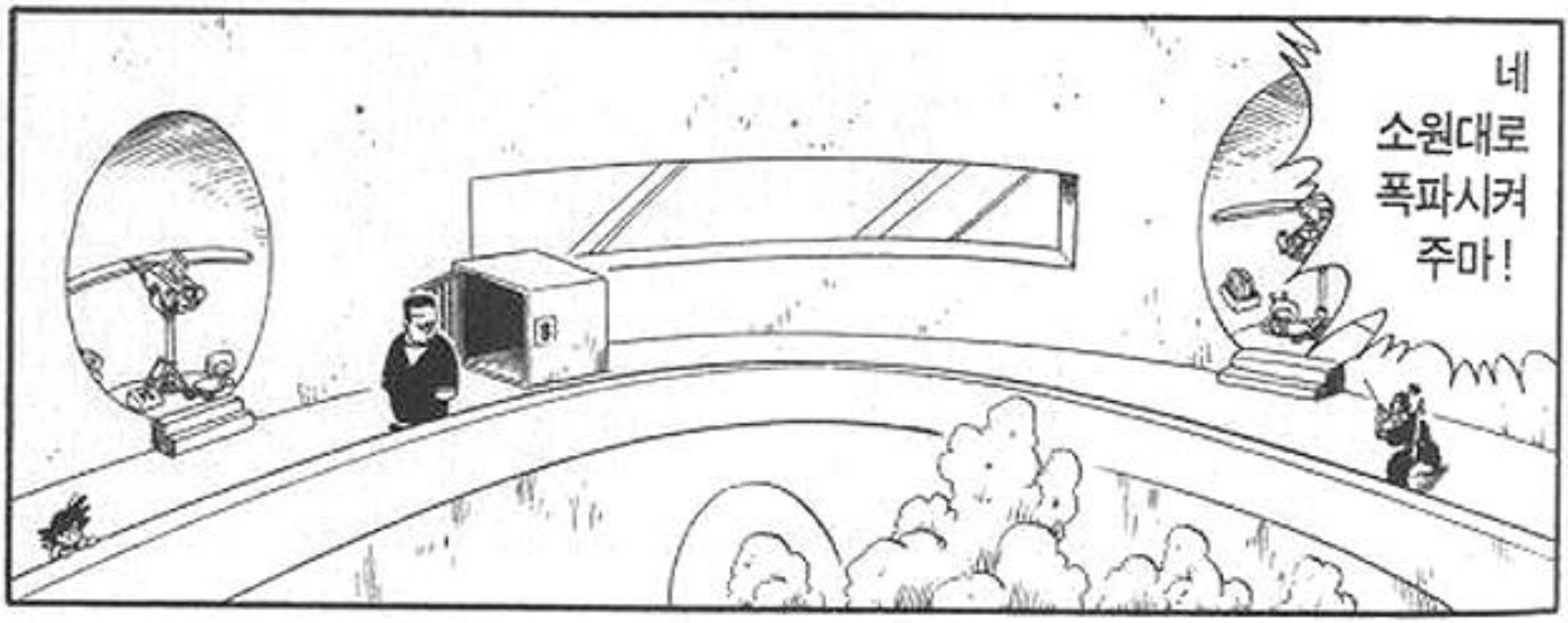
옛!
화이트
장군님!

무라사끼 상사!
그런
바보 같은 건
빨리 폭파시켜
버렷!

배신자!
완전히
실패작
이다!

이…,
이런!


타다닥
넌 이젠 끝장이다!


네 소원대로 폭파시켜 주마!


그렇게는 안 될걸!




이 바보 같은 녀석!
각오는 돼 있겠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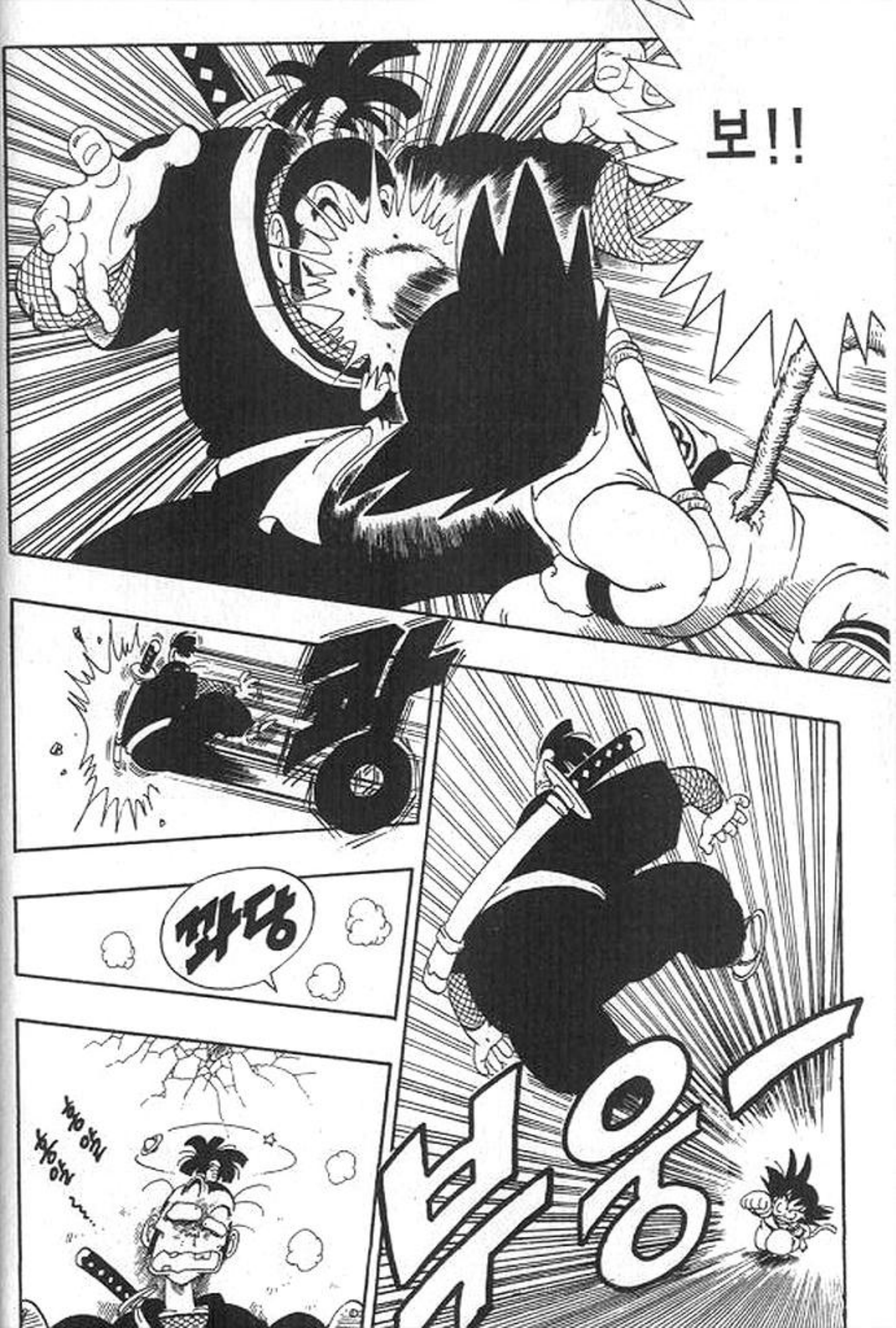
8

이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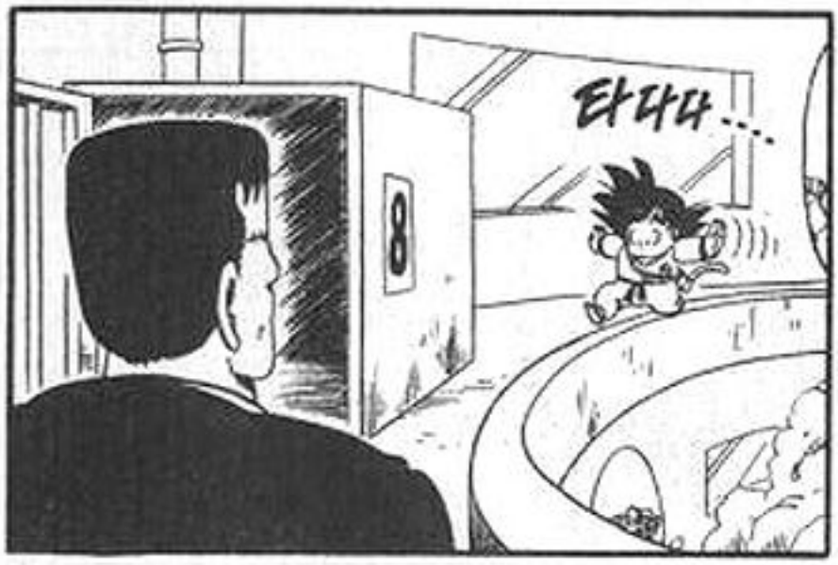
왁!!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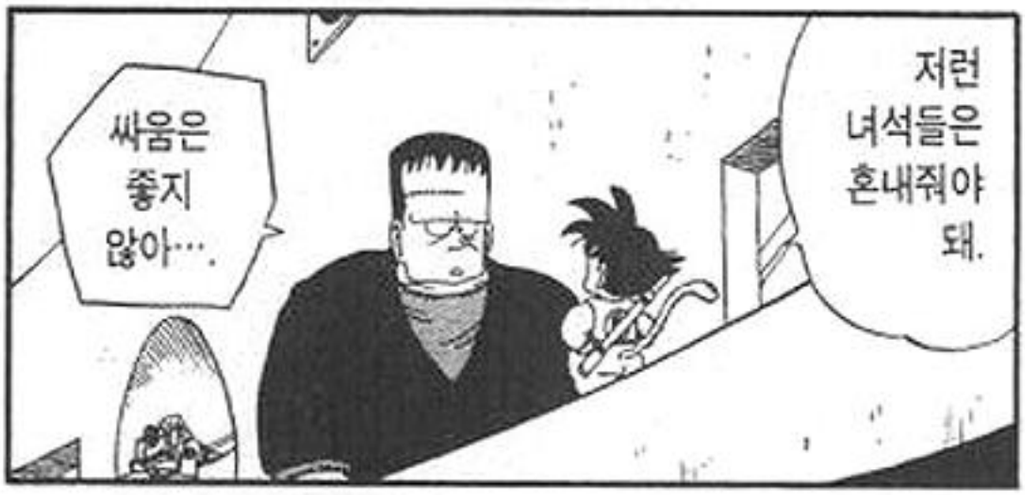

우지끈
팅
번쩍
왓!!
콰콰
콰콰
퍽
비바직
가위바위
….
이…
이 녀석이
리모콘을!
…….


보!!
쾅당


헤헤.
다시는
까불지
않겠지?


타다다…


무지
막지한
힘이…


싸움은
좋지
않아…
저런
녀석들은
혼내줘야
돼.


정말
기쁘다.


싸움이
무서워.
난…


그치만
나쁜 녀석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난
손오공!
넌?

나?

근데
네 이름은
뭐야?

화아!
보기완
딴판이네?

내
이름은
….

인조
인간
8호래.

무슨
이름이
그렇게
복잡하냐?

무슨
8호라고?
이상한
이름이다.

손오공!
촌장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는 거니?

아참!
한가하게
이럴 틈이
없지.

퍽

아마
맨 위층까지
가기가
어려울
거야.

나도
같이
가줄게.

고마워.

날 구해준
보답이야.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큰일나.

우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야, 여기.

네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팔(8)봉이가 뭐야?

팔봉아! 여기가 5층이야?

여긴 4층과 5층 중간이야.

……

팔봉이라….

그거 좋은데?

이상한 녀석이네?

계단이 나왔다!

후아! 정말.

이 방이 바로 5층이야!

엉? 이건 순전히 벽이잖아! 어떻게 들어가지?

5층은 입구가 없는 수수께끼의 방이야. 나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걸.

여기가 맨 꼭대기 6층 사령실이야. 촌장이 갇혀 있는 방.

좋—아!

암마!

네가 두목이냐? 빨리 촌장을 내놔!

화이트 장군!
이제 나쁜 짓은
그만두고
항복하세요!

아주 실력이
굉장한데?
우리 편이면
좋았을걸….

여기까지
용케 올라왔군.
꼬마야.
칭찬할 만해.

우왁
!?

항복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야!

빡

호오….
배신자가
뻔뻔스럽게
헛소리를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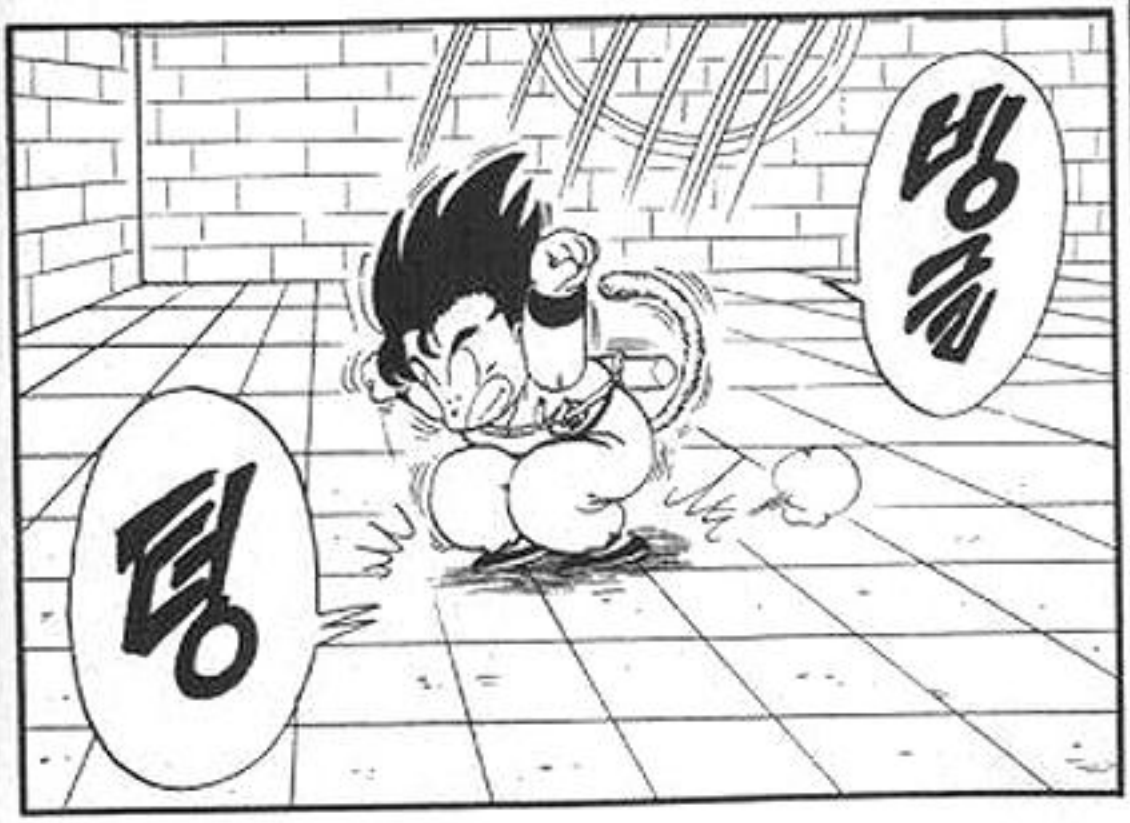
우아앗!!

휘유……웅

다음은, 제64화 5층 전율의 괴물!!



인조인간 8호의
도움으로 드디어 촌장이
갇혀 있는 머슬타워
최상층까지는
무사히 갔건만,
생각지도 않게
화이트 장군의 함정에
빠져버린 오공과
인조인간 8호…!!



미안해, 오공. 괜찮니?

끄응…

퍼당탕

여기가 그 수수께끼의 5층? 별거 아니잖아?

여긴 5층 수수께끼 방이야.

아이구~. 대체 어찌 된 거지? 함정으로 5층에 떨어졌어.

이 녀석들! 거기서 나가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

하하하! 꼴 좋다!

후후후!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어?
저절로
닫히네?

끼끼끼...샥

네가 갖고 있는
드래곤 볼과
그걸 찾아내는
레이더를 내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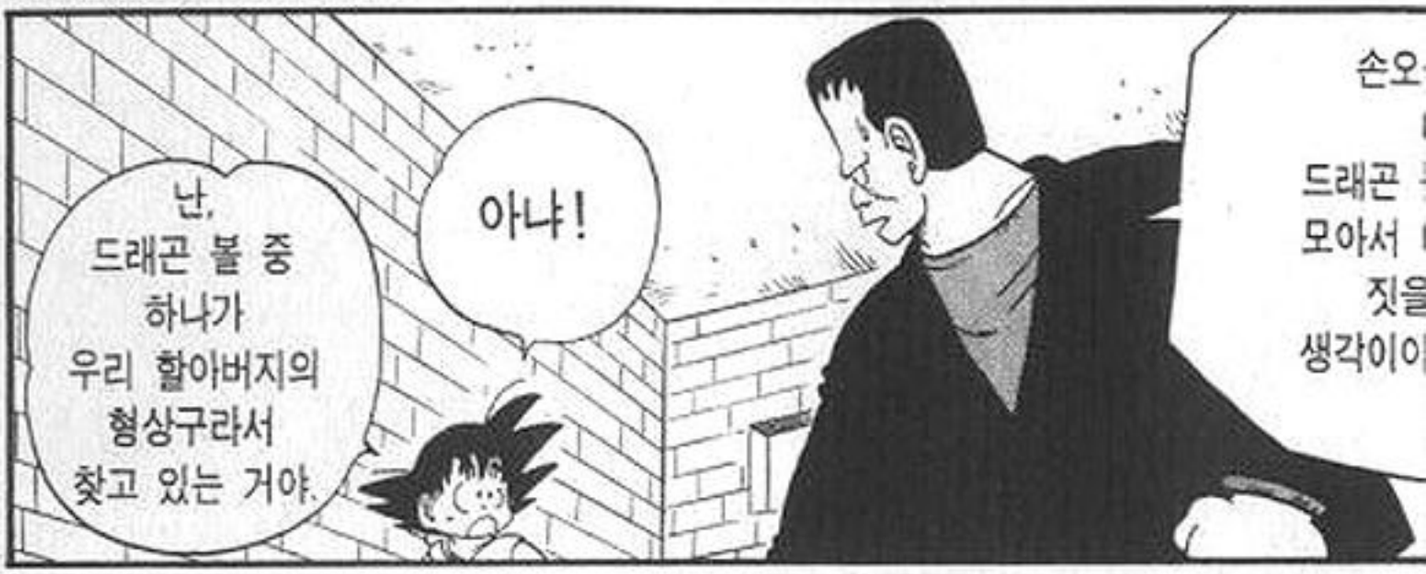
싫어!
너 같이 나쁜
놈에겐 절대
안 줘!

흐흐흐!
그럼 나는
너희들이 죽는
모습을 천천히
모니터로 감상하고
있겠다!

.....

?

지금 쟤가
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난,
드래곤 볼 중
하나가
우리 할아버지의
형상구라서
찾고 있는 거야.
아냐!
손오
드래곤
모아서
짓을
생각이야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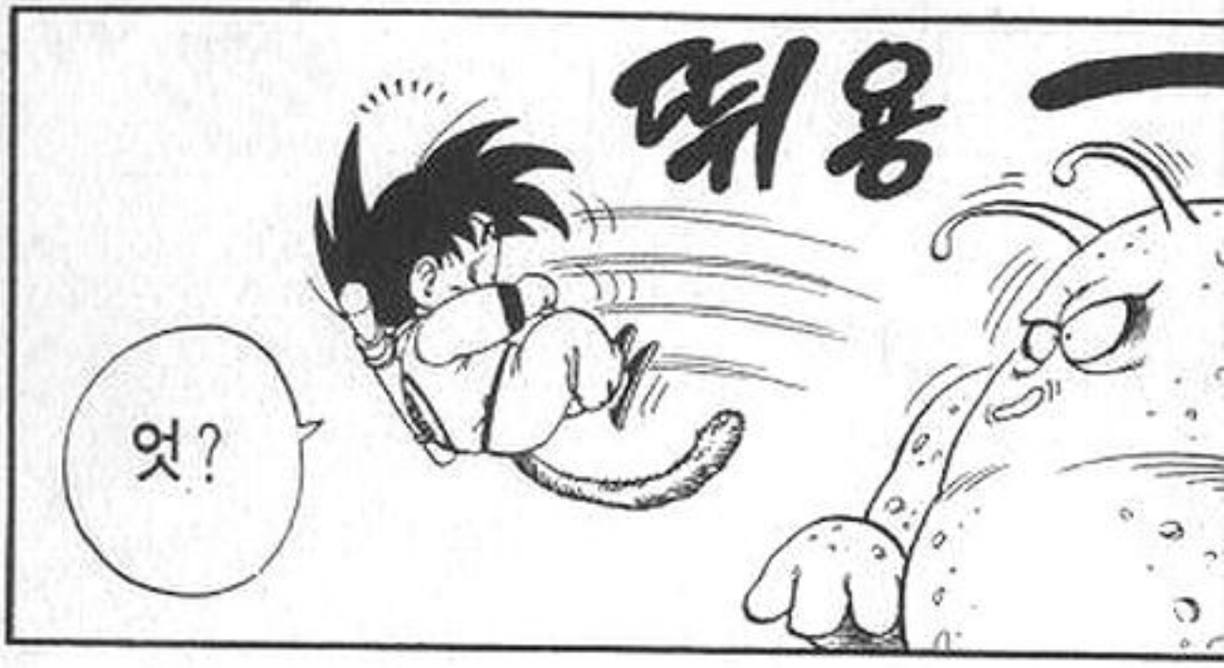

역시
넌 좋은
녀석이야.
안심


아니?
벽이
올라가네?
이상한 게
있다!
조심햇!


에헤헤헤.....!!
으하하하! 요녀석들! 아무리 네놈들이 세다 해도 그 괴물 포동이한테 걸리면 끝장이다! 얌전히 먹히셔—!
으…, 우와!
괴물이다!
낼름~…
힉!!
하하 하하—!
누가 저런 거한테 먹힐 줄 알고?


손오공…. 난…. 무서워.
걱정 마!
저런 건 내 한 방이면 박살이야!
히히힛! 아직도 쟤가 정신 못차리고 있군….
아무리 네가 강하고, 어떤 무기를 가졌든 포동이한텐 안 될걸?
얍!!
쾅


으악!
타악
야아아
압!!


뻐용
엇?


아니…?
내 펀치가
안 먹혀들어…!


헤헤헤헤..




그렇다면
킥을
먹여주마!

꽈앙

으헥!!

물컹

괜찮니, 손오공…?

아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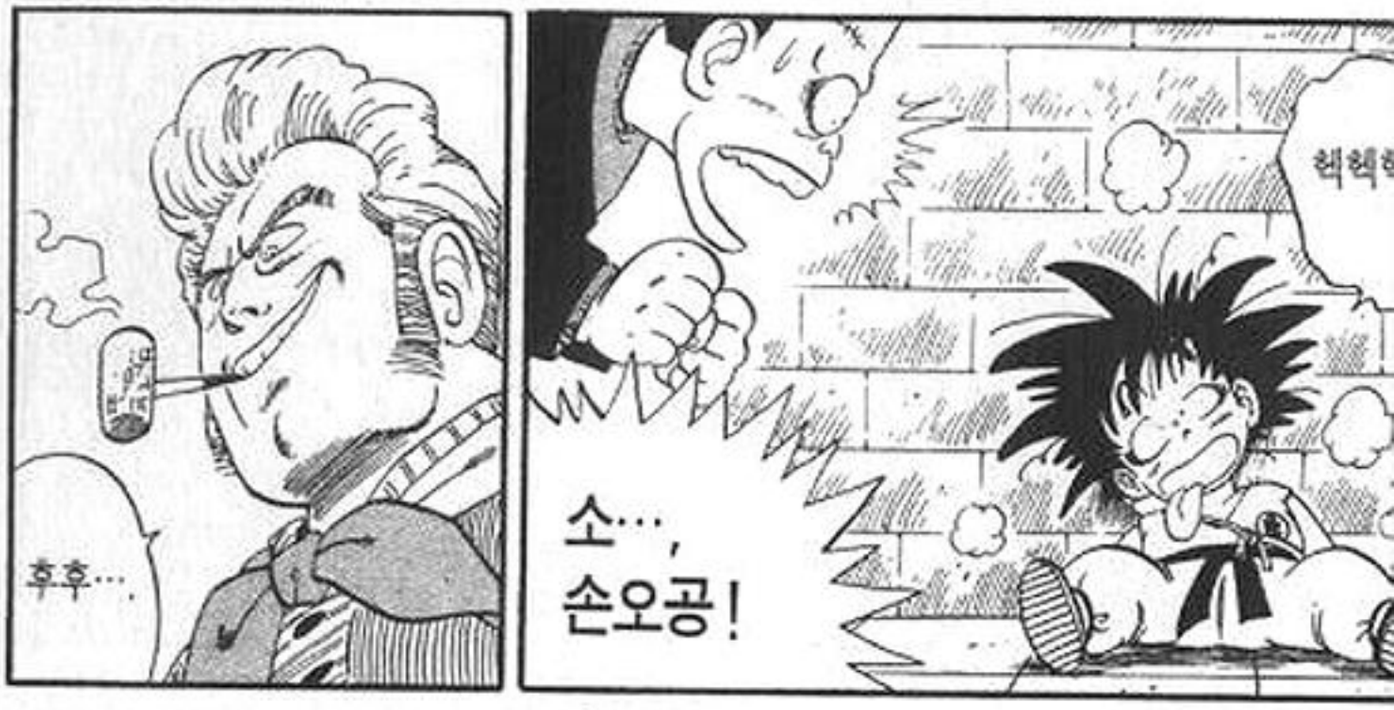
지, 질렸다. 저 녀석 몸이 포동포동 하니까….

내 펀치도, 킥도 소용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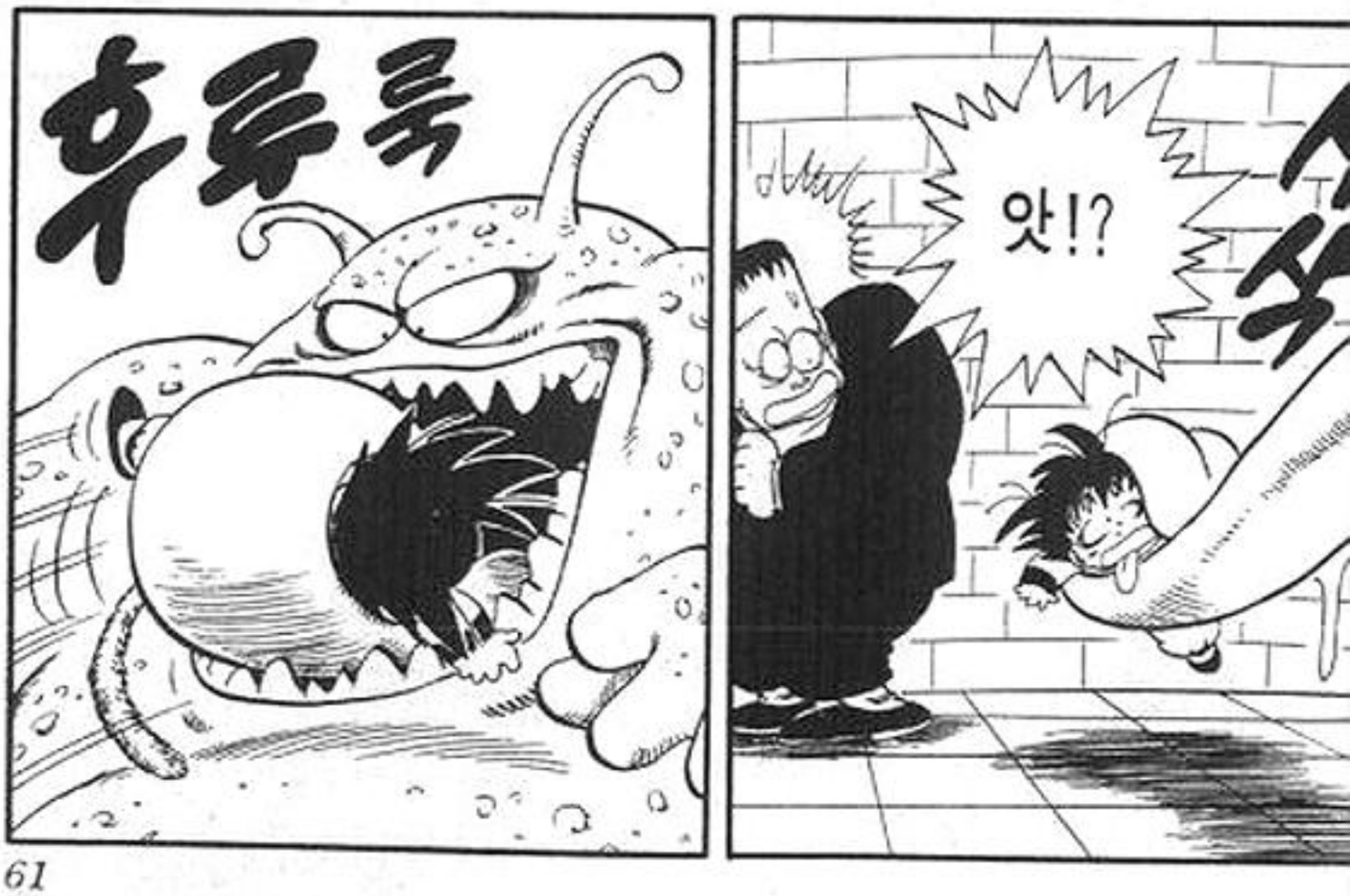
으악!!

빠빠빠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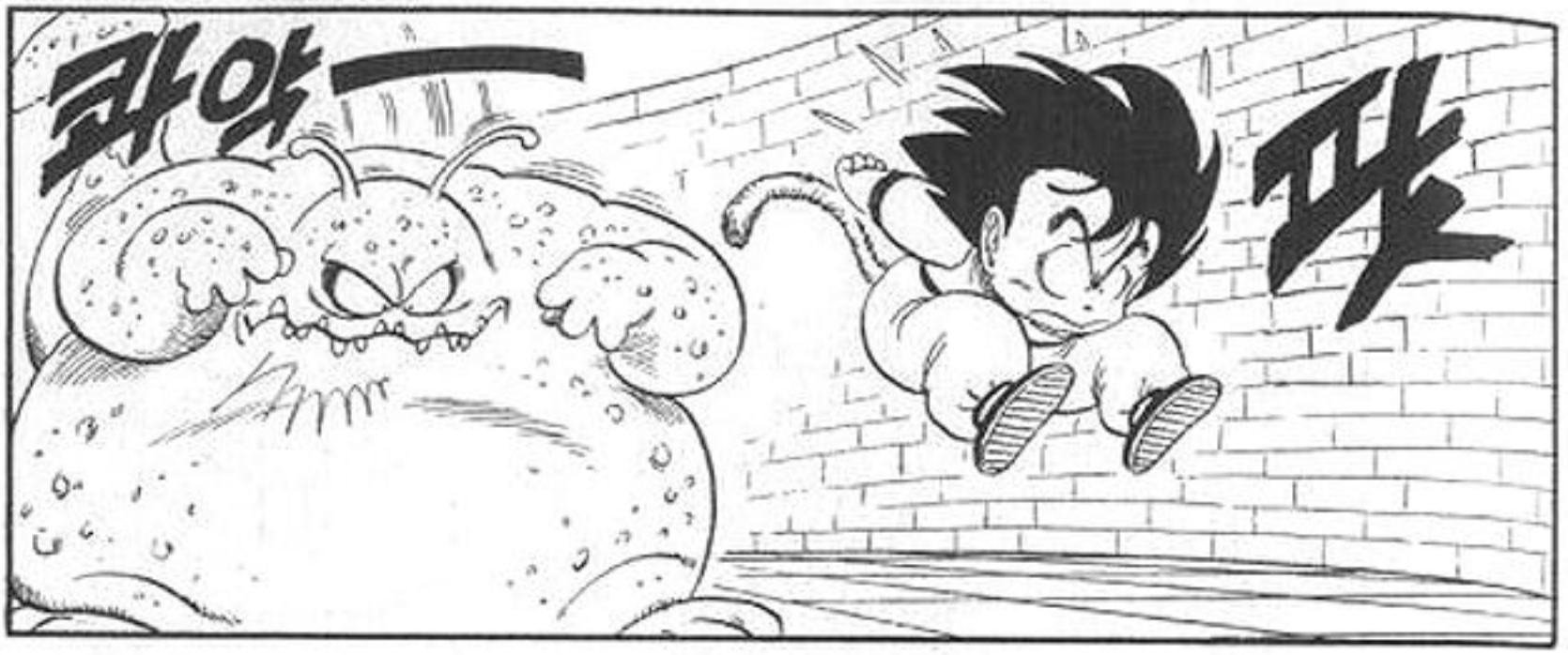
베리라


후후…
소…,
손오공!
헥헥헥


냠 냠 냠 냠 …


후루룩
앗!?


쫄깍
악!
손오공!!
씨익.
힝?
꾸룩
꾸꾸꾸...
꾸꾸...
이야앗!!


콰앙
팍


정말 끈질긴 녀석이군!
칫!


오공!
후우… 하마터면 위장 속으로 넘어갈 뻔했다.
정말 멋져!


샤
파파팍


까우
베지터


나한테 같은 수법은 안 통해!
좋아!!

손오공,
뭐 피곤한 것
같아….

으응…
배도
고프고….

헉

헉

하지만
이거
큰일
났네….

저걸
어떡하면
이길 수
있지…?

아!
맞아!
에네르기파가
있었지!

넌
이제
지옥행이다!

에네르기파를
쓰면
더 배가
고파지겠지만…,
할 수 없다.

에….

네….

엉?

…?

르….

기….



다음은, 제65화 포동이 공략법

펀치와 킥은 물론 에네르기파까지 튕겨버리는 괴물 포동이!
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공은 더욱 지쳐가는데….

으헤헤헤…

으아아….

솔직히 말해서 질렸다.

푸핫핫! 오공, 어떠냐! 넌 이제 끝장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드래곤 볼과 레이더를 주면 살려준다!

싫엇!!

네놈들에겐 죽어도 줄 수 없어! 안 해! 안 줘!


끈질긴 녀석….
그럼 원하는 대로 죽여주지.
드래곤 볼과 레이더는 네가 죽은 후에 찾아도 되지, 뭐.
포동!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즉시 없애버려랏!
크헤헤헤….
제길~!!
쏘우우우욱
왁!!
우아악—


팔봉!!
퍼어
꽈당
괜찮아?
고마워, 오공!
그나저나 큰일이다. 이거 어쩌지?
이런 물컹물컹한 괴물 녀석과 싸워본 적이 없으니….

간다!!

이렇게 된 이상 할 수 없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자!

돌격 개시!!

뿌우우!

하압!!



왓!?
물정~~
아이구~. 얼굴 다 깨졌네!
안 되겠어, 오공! 우리 항복하자!
파악
그런 맘 약한 소리 하지 마, 팔봉아….
사나이 사전에 포기란 없다!
그… 그치만….
이 녀석!!
으헤헤헤…
당장 코를 납짝하게 해주겠다!
말은 자신있게 했지만….
불끈…
정말 어떡하면 좋지…?

잠깐… ?

!!

너, 들판에서 고드름이 되었던 것 기억나니 ?

왜, 왜 그래 ? 손오공….

헤헤 !

그 방법을 써야겠군 !

고드름도 몰라 ? 추우면 얼음처럼 딱딱해지는 거 말야.

고드름이 뭐야… ?

그래 ! 딱딱해지는 그거야 !

바로 내 손 안에 있다 !

승리는 !

본때를 보여주마!

박토리

엉!?

하나, 둘!

억지라니! 두고 보시라!

계속 억질 부리겠다, 이거지?

뭐, 뭐라고?

됐다!!

허어엉!!

아니!?

타다닥

팔봉이는 추위에 강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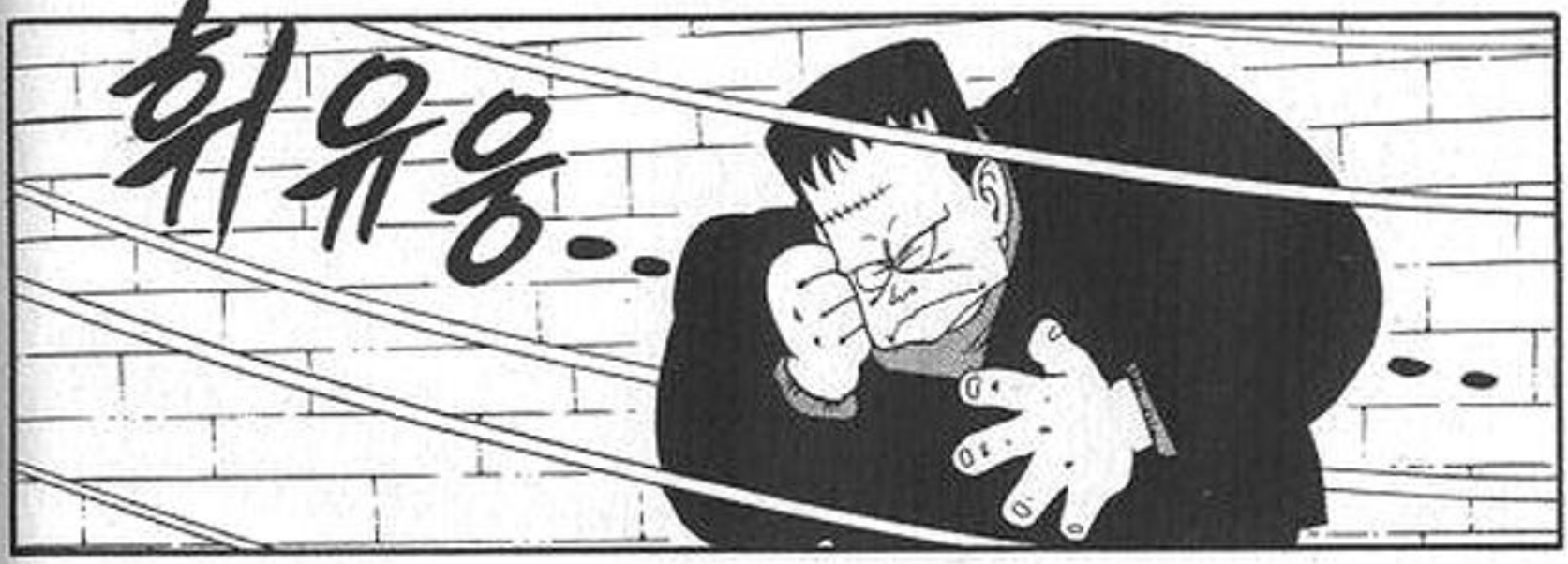
으응!? 나, 난 추윈 끄떡없어.

잘 됐다! 나 좀 들어 갈게!

잉?

엥?





휘유유웅.....




이젠 식은죽 먹기닷!
타닥
텅
손오공, 정말 잘 했어!
헤헤헤. 이젠 꽁꽁 얼었겠지?
으랏찻차!!
콰앙
빠직
빠직
빠직
우왁!! 너무 추, 추워!
타닥
텅


쩍
쩍
찌직…!
땡강ㅣ
투둑…
와르ㅡ…르
끝났다!!
대…
대체 이게 어찌 된…
다음은…
부웅



뽀-옹
왁!!
텅
헤헤헤. 여긴 따뜻해서 좋군.
샤…
여의봉아, 늘어 나랏!!
팔봉아, 이걸 잡아!
쑤—


…?
꽉 잡아야 해!
여의봉아, 작아져랏!
슬슬슬슬슬…
어?
이 멍청한 놈! 방심을 하다니!!
탕!
웃!!
윽!!
저걸 그냥…

분명 총알에 맞았지…?

좀…, 물어봐도 괜찮겠니?

으…, 이럴 수가!

오공! 정말 고마워!

휴—!

그래!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 고통은 두배로 갚아 주겠다!

이젠 촌장을 내놔라!

저승 가기 싫다면 말야!!

 다음은, 제66화 머슬타워의 최후!!

정말로 혼내줄 거야!

빨리 내놓지 않으면!

첫! 건방진 녀석! 꼬마 주제에 감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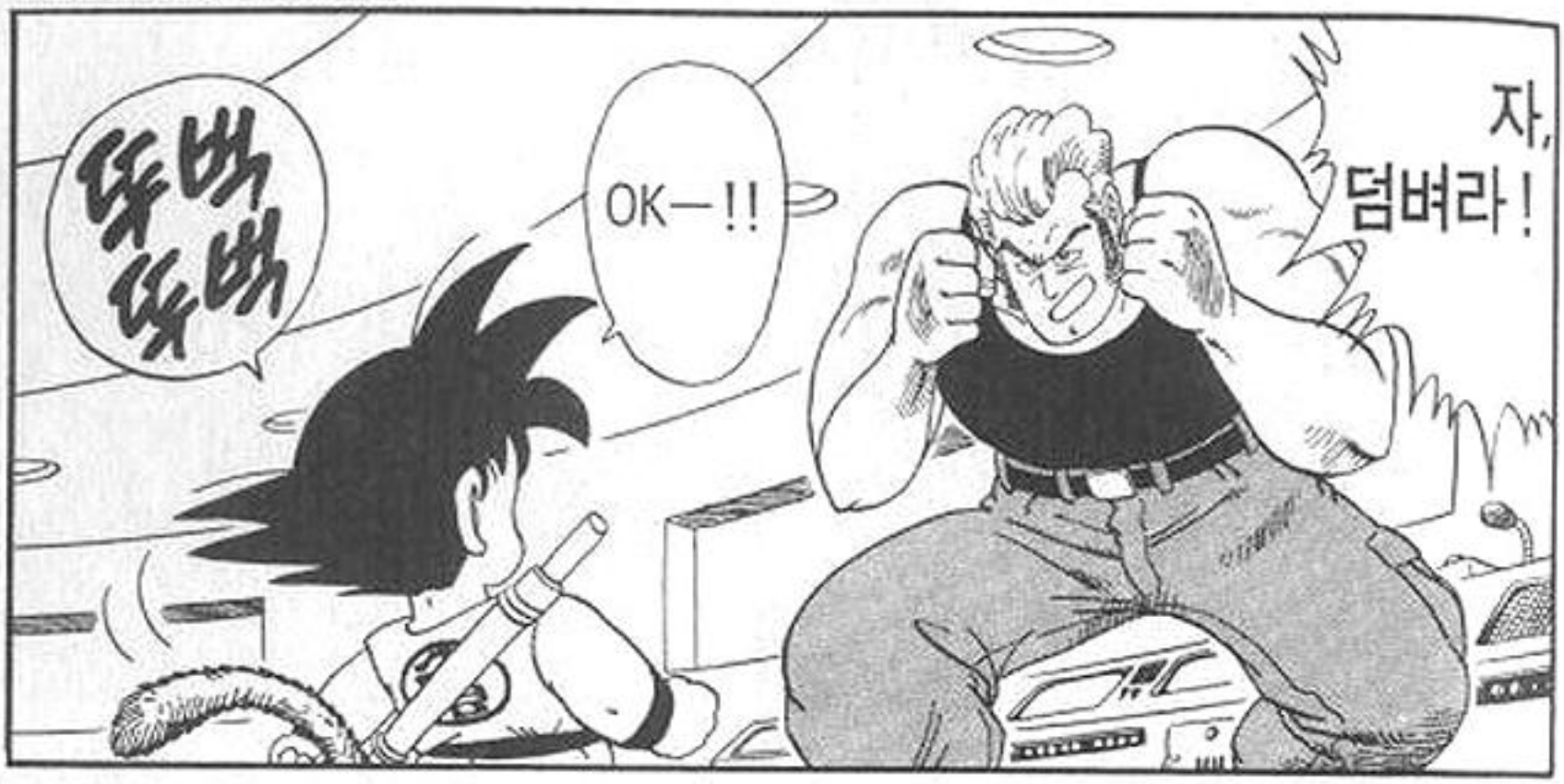
이 화이트 님을 혼내 주겠다고? 해볼 테면 해보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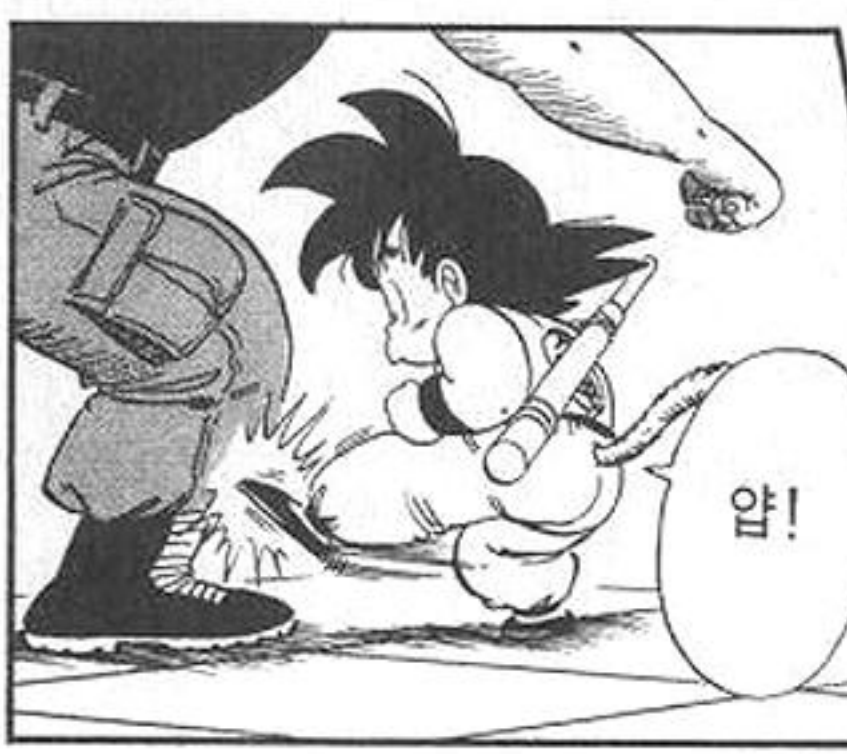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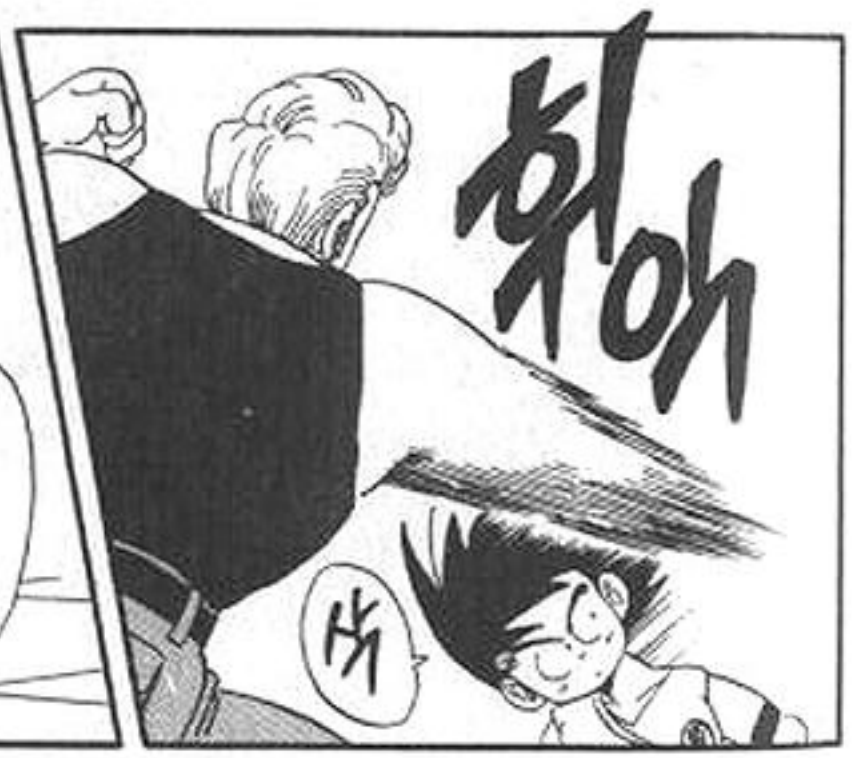
그렇담 나야말로 인정사정 없다! 각오해!

녀석은 지금 지쳐있다….

나한테도 승리의 기회는 있어!


뚜벅
뚜벅
OK—!!
자,
덤벼라!


얍!


헛
아


히히!
너,
이 자슥
—!!


아
후
!!
엄마야
!!


퍼억!
어? 저게 뭐지?
뭐가?
이젠 결판이 났겠지?
히죽!
웬 파리가 날아왔나 했네.
펀치란 건 말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쾅
쾅
헤롱
헤롱…
……
어…, 엄청난 놈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해…. 괴물 이라구….
어떡할 거냐!?
다시 덤빌 거야?
ㅎㅎㅎ…. 살았다, 파워건이 있었어….
빙긋…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촌장을 되돌려 주마….

알았다! 내가 졌어….

삐익

이쪽이다!

목숨은 아깝나 보군.

뭐!?

나와라! 널 구할 사람이 왔다!

샤악


응.
나랑 저기
팔봉이랑
같이 왔어.


네가
날 구해주러
왔단 말이냐?
그, 그렇긴
한데….
당신이
촌장이야?


슬쩍


와~!
네가?
이젠 걱정 마셔.
이 나쁜 녀석의
동료들도 전부
처치해 버렸으니까.
거참
기특
하구나.


확


서툰 짓하면
촌장의
머리통이
박살날 줄
아셔!
움직이지
마라,
꼬맹아!!
이……


앗!!

한번 시험해 볼까?

이 총의 위력은 장난이 아니야!

이런 나쁜….

야, 목 조르지 마. 숨막혀 죽겠어!

너도 나중에 없애 주마!

뭐라고 ~!?

이 겁쟁이 배신자가!

이, 이제 나쁜 짓은 그만 두세요!

화, 화이트 장군님…!

헤헤헷! 이젠 꼼짝 못하겠지…?

치사 빤스 자식…!!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지켜줘!

꼬마야! 난 죽어도 괜찮아! 아무 상관하지 말고 이 녀석을 쳐치해!


정말?
그래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지, 뭐.
엥?
그… 그치만….
가능하면 나도 살려주면 좋고….
……
훗훗훗! 잘 들었지?
촌장을 죽이고 싶지 않으면 뒤로 돌아서!
미안~
뒤? 왜?
아무 것도 없잖아!
흐흐!
파아앙!


!!
소….
손오공!!
우하하핫!!
네놈이 아무리 세다 해도 역시 이 총에는 못당하는 구나!
끝내기 한방 이다!


DOK!
!!
ZAK

엇!?

이 자식,
나에게까지
반항할
생각이냐!

인조인간
8호,
너…!

손오공을
괴롭혔
겠다!!

감히
내 생명의
은인인….

철컥 철컥

이 나쁜 자식!
널 만들어준
부모에게….
너 같은 건
죽어!

앗!
탄환이…!

빵!


퍼억
휘이——…앙
손오공, 괜찮니? 죽진 않았지?
응, 괜찮아…. 좀 아프긴 하지만….
그것보다 팔봉이도 총 맞았지…? 괜찮아…?
난 인조 인간이야.
그러니 그 정도는 끄떡 없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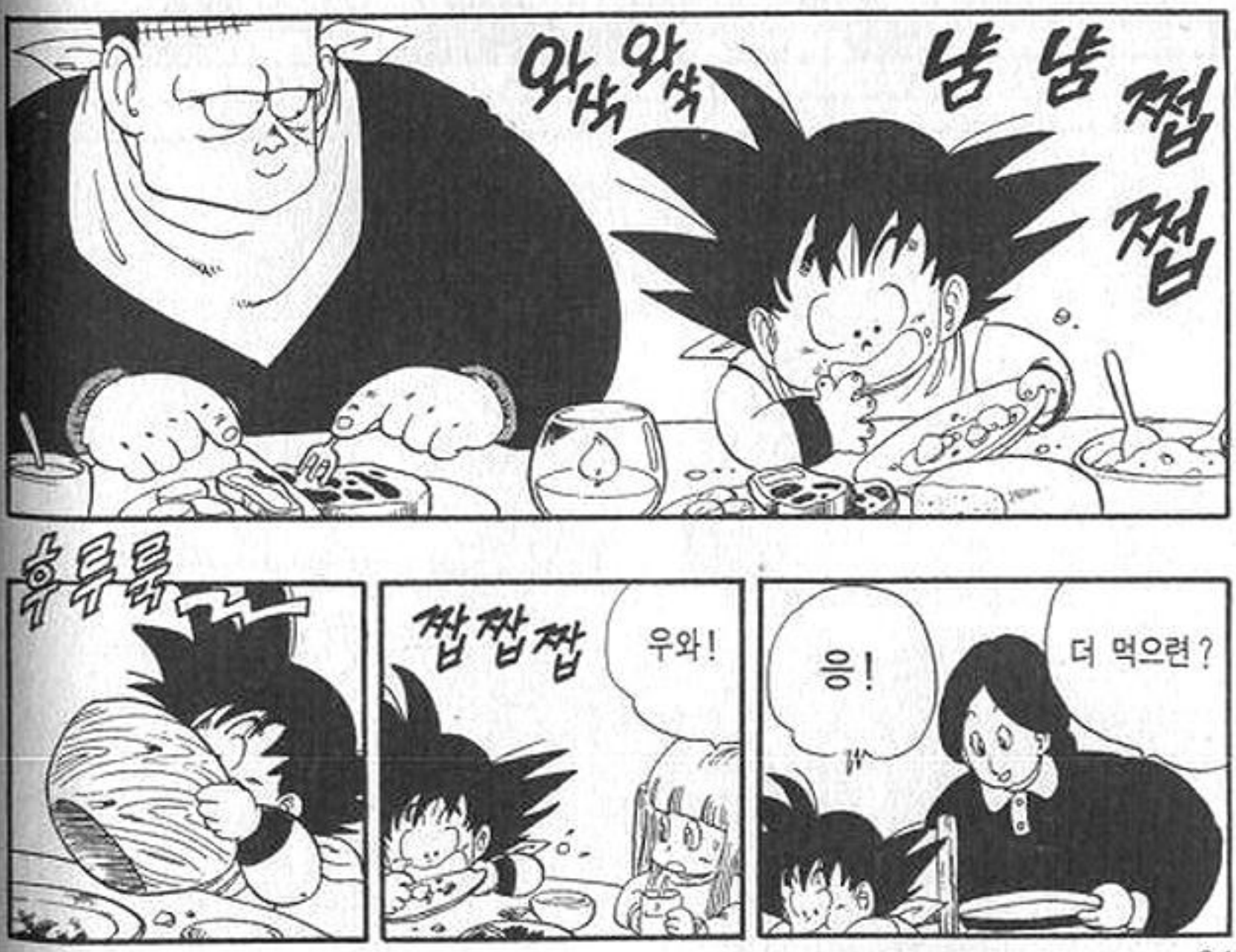






다음은, 제67화 서쪽으로….

인조인간 8호의 도움으로
마침내 머슬타워를 붕괴시킨 오공.
그러나 오공이 찾는 2번째
드래곤 볼은 과연 어디에….



잘 먹었습니다!

굉장하다….

하하핫! 이거 정말 놀라운 꼬마로군!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다네. 어떻게 보답을 해야 좋을지….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그러고 보니 결국 드래곤 볼을 찾지 못했구나…. 대체 어디로 갔지…?

구슬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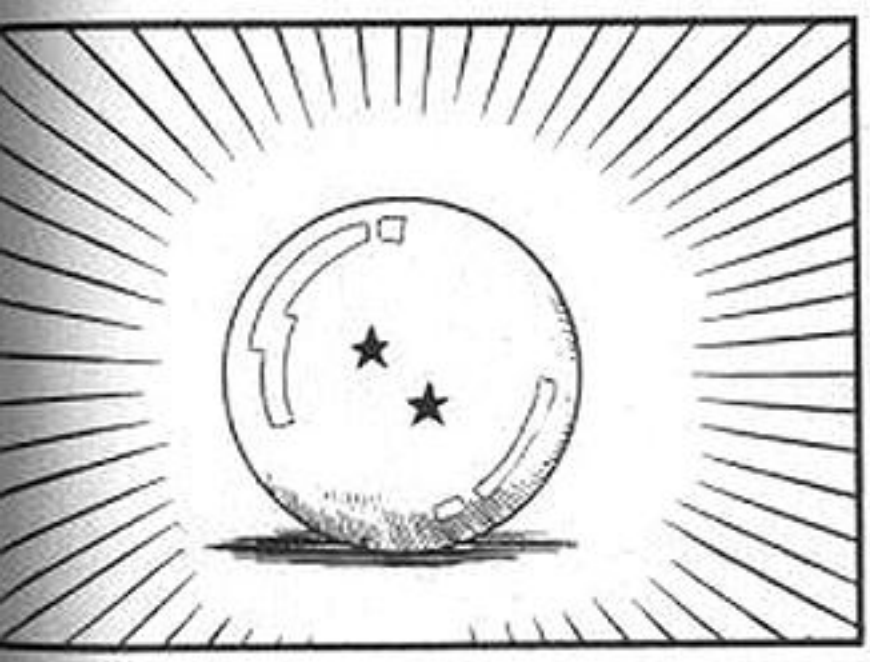
뭐!?

그거 내가 갖고 있어.

……

이게 맞지?

데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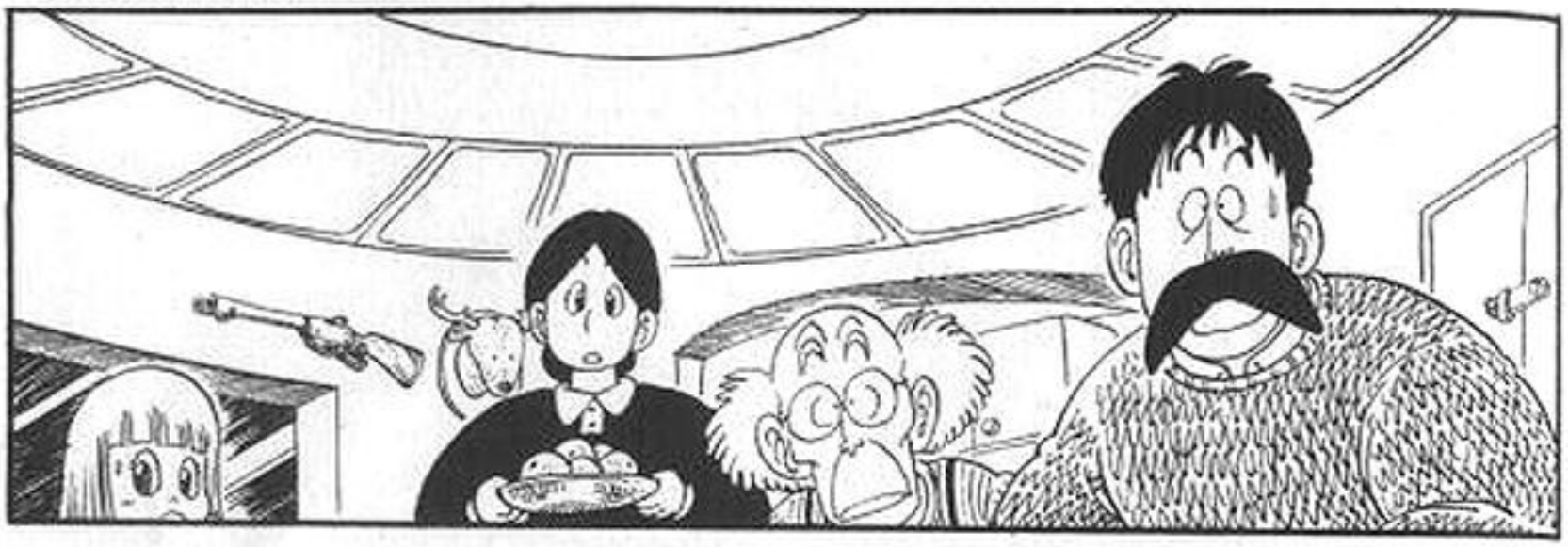


맞아! 이게 바로 드래곤 볼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자네가 이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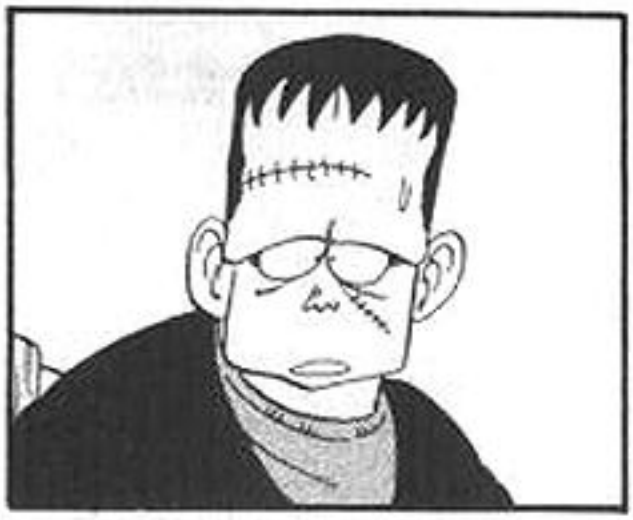
나,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그렇지만 화이트 장군은 드래곤 볼을 찾으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일 계획이었어. 그래서 내가 숨기고 있었던 거야….




엑!?
결정했다!
자네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캡이다
!!
정말
마음에
들었어!




나…
나도?
그래!
난 할멈이랑
둘이 사니까
젊은애들하고
같이 살면
여러 가지로
좋지.


그…
그렇지만
난 인조인간
이라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진짜 인간도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 됐다, 팔봉아!
마을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
정말
잘 됐다!

나,
너무
기뻐….

흐흐흑!
고마워….

하하하

정말
잘 됐어요,
촌장님—!

같이
사는
거지?

할아버지의
형상구인
사성구를
찾으러
가야 해.

이것도
할아버지
형상구가
아니라서.

난
안 돼!

손오공도
같이
살자.

너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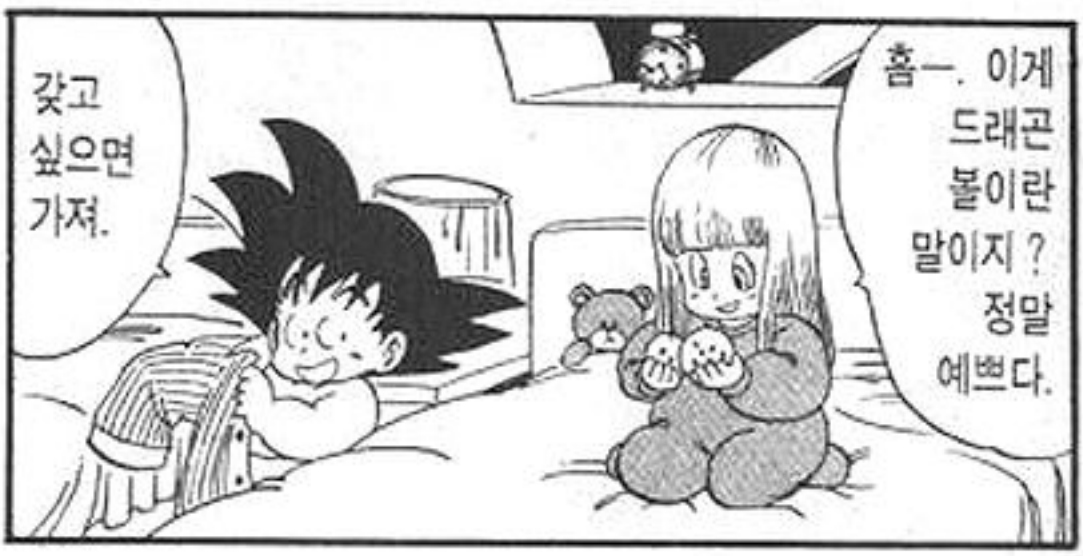
또
만나러
올게, 꼭!

그렇구나,
너무
서운한데
….


고맙습니다.
오늘밤은 여기서 자고 가렴.
자, 모두 피곤할 테니….


안녕히 가세요!


팔봉이도 내일이면 오공과 헤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함께 자거라.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갖고 싶으면 가져.
흠ㅡ. 이게 드래곤 볼이란 말이지? 정말 예쁘다.




이딴 것 갖고 있으면 레드리본 군이 또 쳐들어올 거야.
싫어!

오공!
이트 장군이
고 싶어하던
형 레이더가
거니?

그럼
내가 갖고
있을게.

그래,
바로
이거야!

부르마라는
애한테
얻은 건데
이걸 누르면….

딸깍

엉!?

딸깍 딸깍 딸깍

왜
그래?

망가진 것
같아….

큰일났네…!
아까 싸울 때
충격을
받았나봐.

이리 줘봐.
기계에 대해선
내가 잘 알아.

이 레이더 만든 사람은 누구지? 정말 천재인걸.

안 돼…. 너무 복잡해.

고칠 수 있겠어?

그렇담 서쪽 도시에 사는 부르마네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쩌지…? 이게 망가지면 드래곤 볼이 어디 있는지 몰라.

걸어가지 뭐!

무지무지 먼데 어떻게 갈 생각이야?

그러니까 저쪽인가….

서쪽 도시라면….

서쪽 도시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니?

정말!?

그 대신 도시락 많이 만들어줄게.

그치만 할 수 없구나. 이 마을엔 차도, 비행기도 없으니.

손오공, 힘내야 해!

거…, 걸어 간다고? 그렇게 먼 곳을?


내일을 위해서 푹 자두자.
응! 잘 자!
너도!
쿨ㅡ
쿨ㅡ
이불 속에서 자보는 건 처음이다. 아! 기분 좋아.
다음날 아침….
와글 와글 시끌 시끌
뭐? 걸어가겠다고!?
응. 근두운이 망가져서….
뭐라고!?
근두운?

응. 탈 줄 알지…. 근데 할아버진 근두운을 어떻게 알아?

근두운…?

네가 근두운을 탄단 말이냐?

그렇지만 그건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이 아니면 탈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걸 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완전히 안 보이게 됐어.

그래, 맞아!

알고 말고. 내가 어렸을 적엔 꽤 많이 있었는데….

아니…. 난 벌써 죽어버렸다고 생각해서….

하하핫! 근두운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다시 불러본 적 있니?

근두운을 탈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꼬마로군.

그치만 레드리본 군이 폭파시켜서 없어졌는걸.

알았어!

다시 한 번 불러보렴.


유윤
...


유윤아
나
오공이야 ...


앗!
정말 온다!!
쉬웅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반가워,
근두운!
깨
깨
깍

그럼
나 간다잉!
모두 건강히
잘 있어!

호오!
정말 탈 수
있구나!



마을
사람들도
안—녕!

잘 있어,
팔봉!

손오공,
잘 가!
레드리본 군
따위한테
지면 안 돼,
응?

손오공!
정말
고마워!

넌 나의
진정한
친구야!

다음은
서쪽
도시다!!

야,
근두운
!!



안—녕!
아…! 저렇게 빠를 수가…!
멋지다….
휘유——…웅
와와 꼭다시 잘가! 와야해! 안녕!

휘유웅…

와! 벌써 추운 곳을 지났네!

근두운! 넌 역시 빨라!

이얏—호!!

드래곤 레이더를 고치기 위해 부르마가 있는 서쪽 도시로
발길을 돌린 오공…, 과연 무사히
부르마와의 재회는 가능할까…?

다음은, 제68화 서쪽 도시의 부르마네 집

망가져버린 드래곤 레이더 수리를 부르마한테 부탁하기 위해
서쪽으로 날아간 오공. 드디어 부르마가 살고 있다는 도시에 오기는
했지만…. 과연 부르마의 집을 찾아낼 수 있을지!?

어?
엄청
복잡해졌네?

우왓!
여긴
뭐지?

부르마가
이렇게 굉장한
곳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157


위
쉬
웅
바-앙
이젠 걸어다니며 찾을게.
두리번 두리번
붕웅—
아유~, 시끄러워. 정신이 없네.
빵빵—
와글 와글
얌마! 너 지금 어딜 걸어다니는 거야!
엉?

뭐가 저렇게 바쁘지?

내가 어떻게 알아! 빨리 비키지 못해! 그냥 팍 쳐버릴까 보다!

저기,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부르마네 집이 어딘지 알아?

뭐, 부르마…?

저기, 부르마네 집이 어디지?

큰일 났네….

개 정말 여기 살고 있나…?

같은 도시에 살면서 어디 사는지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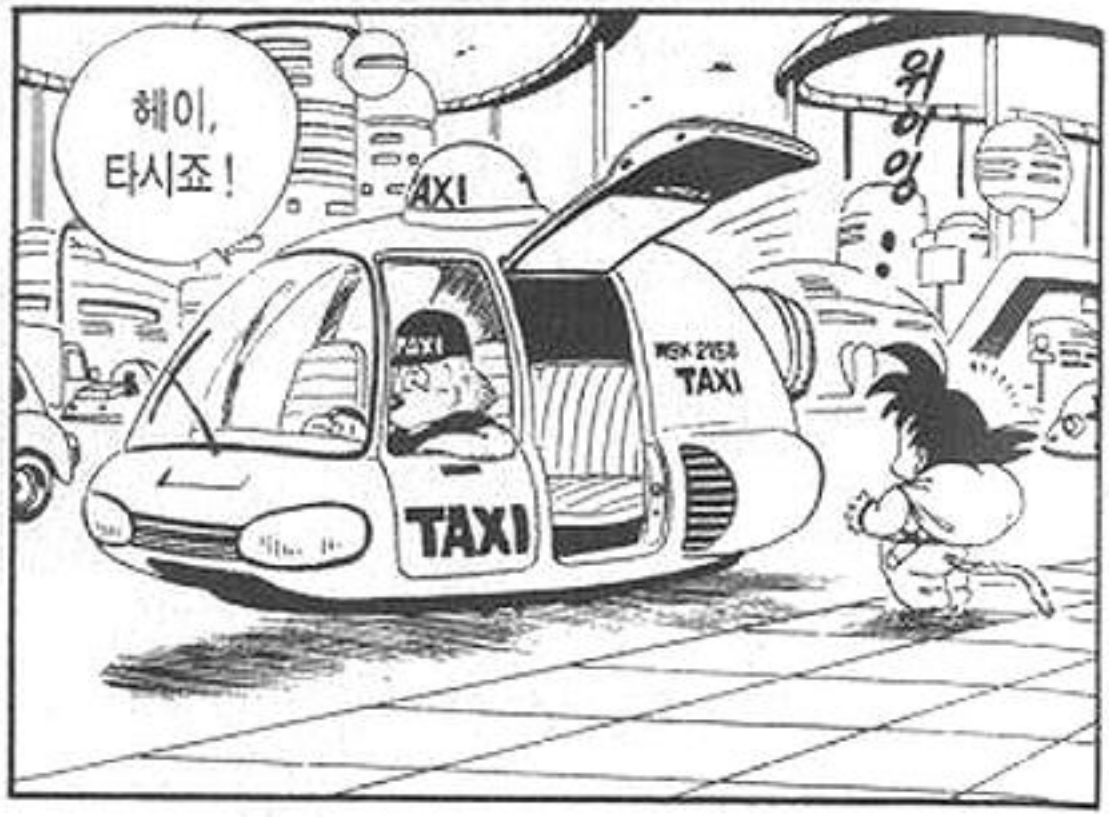
다른 사람한테 물어 보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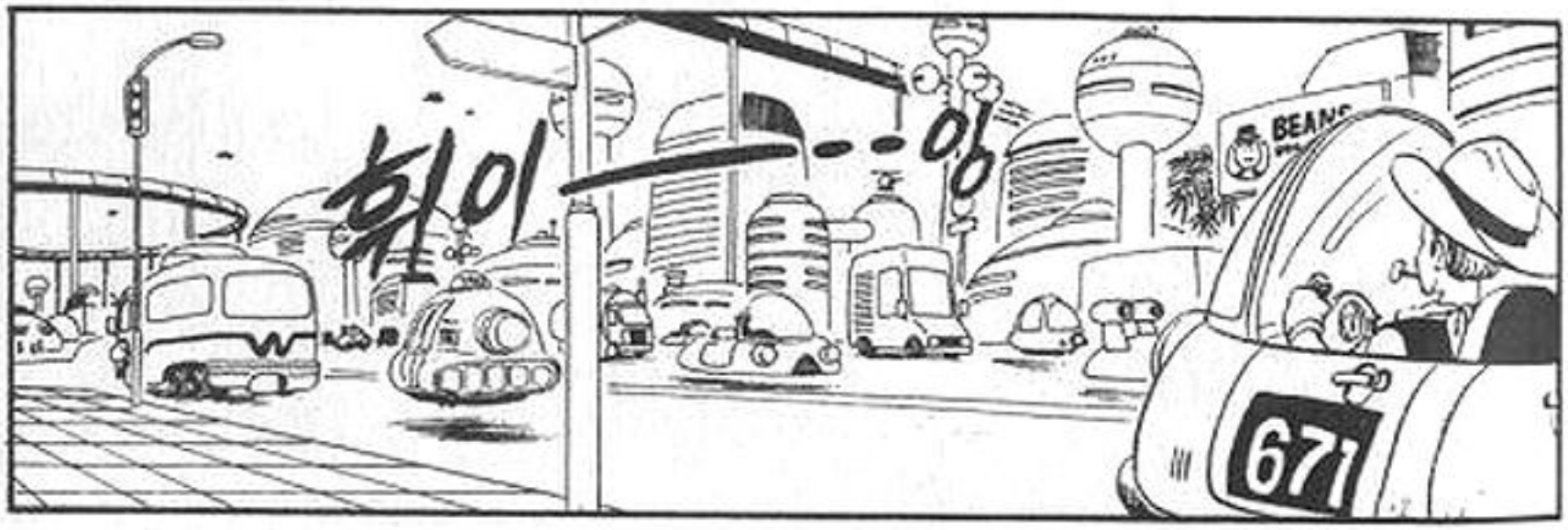
글쎄, 모르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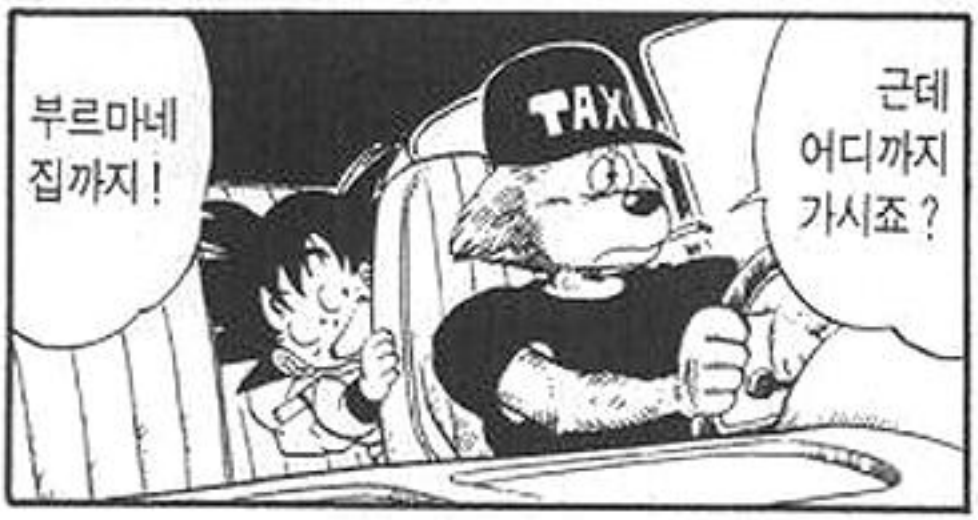
저기, 잠깐만!

끼이 - - - - - 익


태워
준다고?
땡큐—!
TAXI
NSK 2158
TAXI
TAXI


헤이,
타시죠!
워
어
엉
TAXI
TAXI
TAXI


휘이
이
BEANS
671


부르마네
집까지!
TAXI
근데
어디까지
가시죠?


이렇게 차까지
태워주다니,
좋은
사람이야!
정말
잘 됐네
—!


깨
TAXI
TAXI


지금
찾고
있거든.
나
잘 몰라.
그게
어디
있는데요?

돈 한푼 없는 주제에 택시는 무슨…!

지금 누구 놀리냐?

……?

돈? 아니, 난 없는데?

저, 손님! 돈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에서는 집을 가르쳐 주는데도 돈이 필요한가~?

이상하다?

이얏—

무슨 일 있나?

미안, 잠시만.

…….

날 이기는 자에겐 10만 제니 주겠소! 자, 자! 어때—!?

자! 다음, 누구 희망자 없어?

응? 뭐지…?

와글 와글 시끌 시끌

와글
와글
와글
와글
와글
わい
날 이기면 무려 10만 제니를 공짜로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빨리 덤비셔! 누구 도전자 없나? 날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 보라구!

내가 싸우겠다!
농담 마! 저 녀석은 권법을 쓴다구!
와글
와글
와글
어뵤, 자네가 한번 해봐!
상금이 있다고?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은 거구나!

난 농담은 싫어해!
하
하
하
하
나, 농담 아닌걸?
와 하 하하하하
에잉?
잠깐만~! 짐 좀 풀고!

후우!
오케이.
알았다.
알았어!

그럼 대결하자.
원래 대전료로
만 제니 받아야
하는데 꼬마는
특별히 무료로
해주지!

나하고
싸우고
싶니?

와
하
하
하

응!!
이기면 진짜
10만 제니
주는 거지?

오하하하하하

고마워!
살살
싸워줄게!

그럼
슬슬
시작해
볼까?

좋아!
간다!

합!!!



으헥
헥
켁켁…
퍽
으…
졌지?
하하하…! 무, 무슨 소릴 하는 거야…?
꼬, 꼬마야. 너, 어디서 권법 좀 배운 것 같은데…?
응! 수련을 했어!
자, 다시 시작이다!
그럼 또 간다!
이요옵!!



아이구~! 엄마야~!
빨리 졌다고 말하는 게 좋을걸!
이 자식이…! 너 진짜 죽을래!
야합!!
살짝!
하홉!!
호이!


자,
조심해!
잘 피해야
돼!


타
타


!!



퍽

져…,
졌습니다….
헤헤,
고마워!

헤헤~! 돈 많이 벌었다.

와~! 굉장하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야, 저 촌뜨기 녀석 손 좀 봐!

굉장한 돈을 갖고 있네…!

헤이, 꼬마야~! 이리 좀 와보련?

엥?

잠깐이면 돼. 자, 이쪽으로.

뭐 줄 거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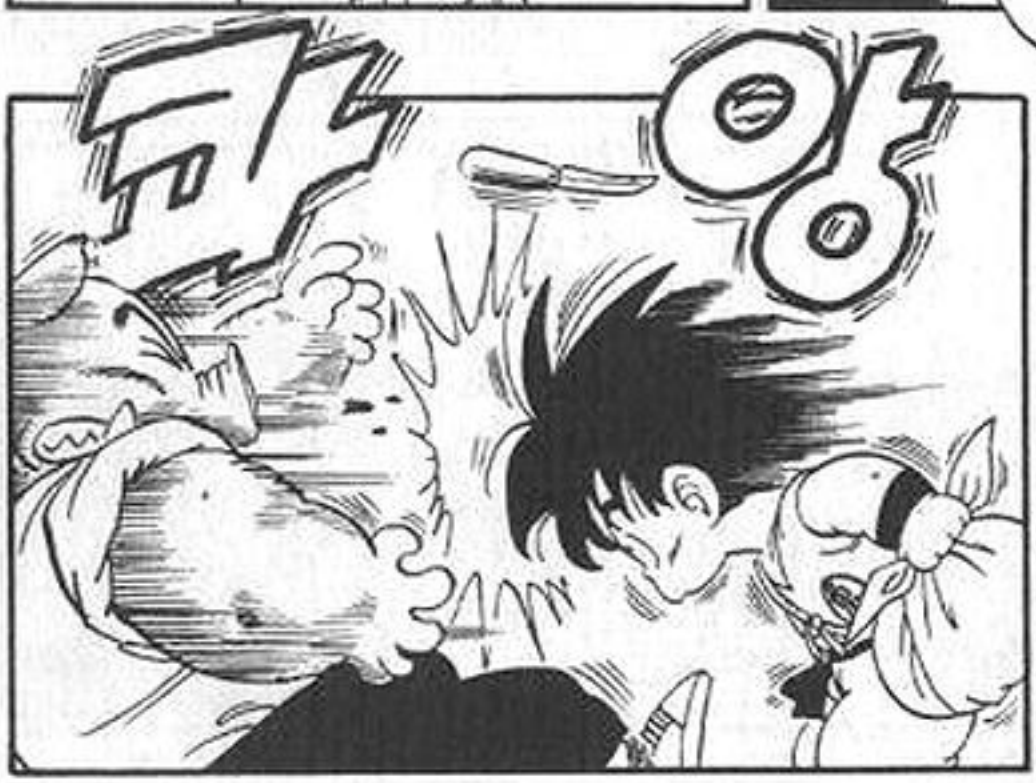
흐흐.

주긴 네가 줘야지.

히히히…, 그 돈 내놓으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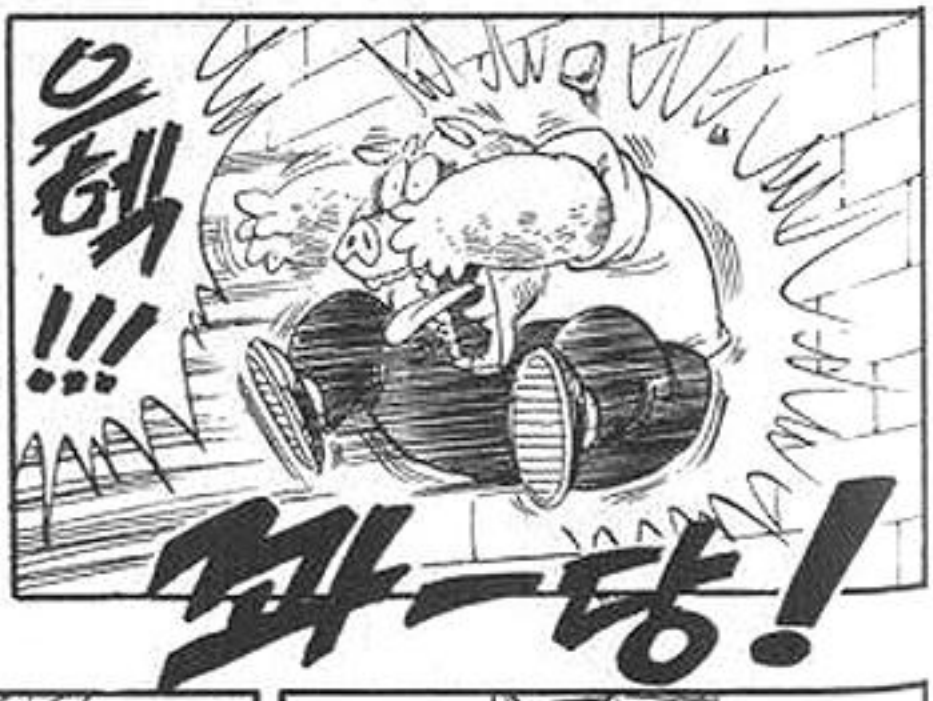

부르마네 집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
흥이다! 메롱!


부르마네 집 가르쳐 줄 거야!?
헛소리 말고 빨리 돈이나 내놔!


퍽
퍽


이 녀석!!
너, 나한테 죽고 잡냐? 앙!!




으헉!!!
꽈당!


겨…, 경찰한테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르마네 집이라고 했지?
경찰이라는 사람 말이지? 땡큐.


멍청…

이봐요! 경찰—!
엉…?
POLICE
아, 경찰이라면 저기 서있는 사람이야.
너무 고마워!
이런 얼굴이야!
그, 그걸로는 좀….
?
잠깐 만…!
부르마라는 여자라….
주민등록 번호도 모른단 말이니?
이거 곤란한데….
호오…, 세 사람 있군. 어디 보자….
부·르·마… 라…
특이한 이름이니까 금방 찾겠다….
사실 민간인한테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없지. 컴퓨터로 찾아볼 수밖에….
부르마다!!
SSC 41453 BULMA
그럼 이 사람 어때?
아냐!
이 사람?
BULMA
ICE











다음은, 제69화 부르마와 오공. Part 2

나야, 나!

부르마!

드래곤 레이더를 고치기 위해 무작정 부르마네 집을 찾기는 찾았지만….

CAPSULE CORP.

디비디비! 부르마 님은 지금 학교에 가셨습니다만…

아, 여보세요! 여기 부르마 씨라는 분이 살고 계시죠…?

벽이 말을 하고 있네?

엥? 그게 뭔데?

얘!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여기 인터폰이 있잖아!

그건 안 돼! 네 정체도 모르잖아.

나쁜 녀석을 안내했다간 난 모가지 날아간다.

CAPSULE CORP.

그래, 그러고 보니 아직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구나…. 어쩌지? 기다릴래?

기다릴게! 경찰 아저씨는 이제 가도 돼!

POLICE


캡슐주식회사라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니까. 그런 회사의 따님과 아는 사이라고? 믿을 수 없어….
엉?
부르마 냄새다….
쿵쿵
뭐? 냄새…?
저거다!!
그아앙-----
그앙
부르마!!
엉?!
CAPSULE CORP.
CAPSULE

이 경찰이라는 아찌가 찾아줬어!

용케도 집을 찾았구나!

오공 이잖아!

잘 있었어?

근데 무슨 일인데?

너한테 받은 레이더가 고장나서 고치려고….

네, 그런데요?

아, 아가씨가 이 캡슐 주식회사의 따님인가?

CORP.

저, 저어. 미안하지만 제 오토바이도 좀 고쳐줄 수 있소? 지금 맛이 좀 가서….

좋아요! 들어 와요!

CORP.

이… 이상하다?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지…?

그래? 좋아, 들어와!


나 왔어!
땡땡이는 안 돼.
디비디비! 이제 오세요?
이상한 놈이네ㅡ.
재미없어서 땡땡이 쳤어요.
근데 벌써 수업 끝났나?


지잉ㅡ
빠빠빠
너네집 무지 넓구나!


디비디비! 아마 정원에 계실 겁니다!


으헥!
밖이 아냐! 1층이 정원이거든.
어라? 또다시 밖 나왔네!

아빠가 주변에 버려져 있는 개, 고양이, 공룡 따위를 데려오지 뭐예요?

강아지랑 고양이 같은 동물이 굉장히 많네요?

으-

저기, 아빨 좀 찾아줘!

디비디비! 옛!

무슨 일이냐, 부르마?

삑-

삑-

덕

아! 오신다!

야아, 그래! 그렇구나. 꼬마라고 들었는데 꽤 크잖아! 네가 정말 12살이냐?

저어…. 저…, 저는….

호오, 그래?

전에 말한 적 있지! 얘가 손오공이라고….

네가 그렇게 힘이 세다며?

헤헤~!

이… 이 분이 캡슐을 발명한 브리프 박사…?

안녕!

아, 네가 오공이구나! 진짜 꼬마네?

키스는 무슨 키스!!

너무 늦은 거 아냐…?

근데…, 너희들 키스 정도는 했니?

우린 위층에 가 있을 테니까 아빤 경찰 아저씨 오토바이 좀 고쳐줘.

호오~! 이 오토바인 분명 우리 회사 제품인데!

애들은 몰라도 돼!

부르마! 키스가 뭐야?

아빤 정말….

CAPSUL

레드리본 군 본부….

레드 사령관님!! 화이트 장군이 보낸 영상을 통해 적을 파악했습니다!

그래!?

그런 곳엔 드래곤 볼이 있을리가 없잖아?

글쎄 말예요….

왜 녀석이 서쪽 도시 같은 델 갔지?

정말!?

이… 이런 꼬마한테 실버와 화이트가 전멸당하고 드래곤 볼까지 빼앗겼단 말야…!?

머저리 같은 놈들…!

으~!

옛!

각 부대에 녀석의 사진을 보내서, 발견되는 즉시 사살해 버리라고 해! 알겠지!

이 꼬마는 우리가 찾고 있 나머지 4개 드래곤 볼 하나를 노리 있는 틀림없

어떻게 저 녀석은 그렇게 쉽게 찾아내지….

틀림없이 성능이 좋은 레이더를 갖고 있겠죠.

제길~ 우리 군 총력 기울여 만 레이더로 찾는데 아 먹고 있는데

다행이다!

좋아, 다 고쳤어!

앞으로는 좀 살살 다뤄라….

내일은 일요일….

어라? 이제 겨우 2개밖에 안 모였잖아.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냐~?

헤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좋아!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재미있을 거 같으니까 나도 찾는 거 도와줄게!

엑? 괜찮아, 네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걸!

뭐라고라? 내가 도와주면 할아버지의 사성구 쯤 문제 없단 말야.

넌 근두운을 탈 수도 없잖아….

내가 업고 갈 수도 없구.

번쩍

호호호! 너, 이게 뭔지 아니?

그게 뭐야?

내가 만든 마이크로 밴드야.

이 스위치를 누르면 작아질 수 있거든!

삐

어때, 놀랐지? 이 정도면 날 업고 가는 거 쉬울 거야!

우와와! 생쥐만 해졌다!

앗!

샤샤샥

안녕? 난 부르마 엄마예요—!

어머~! 네가 오공이라는 애구나!

예!?

꽉!

어멋!!

쌍욱

엄마가 날 밟았잖아!!

너, 엄마 발 밑에서 뭐 하고 있었니?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나빠!

이런 데서 작아지면 어떡하니~?

정말~ 넌 너무 반항적이라 니까….

우우웁!

엄마! 얜 꼬마야, 꼬마!

오공, 미안해! 딸이 워낙 철이 없어서…. 술이라도 한잔 할래?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소곤 소곤

야무치랑 오룡이랑 푸알은 아직 학교에서 안 왔어. 근데 말야, 손 군! 부르마하고 야무치는 요즘 냉전중이란다. 야무치가 워낙 미남이잖아.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인기있는 게 질투나서….

깜짝

저기, 야무치하고 오룡은?

이번에는 야무치보다 훠~얼씬 멋진 남자를 데려오겠어! 두고 봐!

난 오공하고 다시 드래곤 볼을 찾으러 갈 거야!

너, 요즘 사춘기 구나!

정말 가는 거야…?

자, 오공! 빨리 가자!

어머! 그럼 엄마도 같이 가서 멋진 남자를 찾아볼까?

오지 마!!

아빠, 내 캡슐 케이스 어딨어?

아이구, 이거 정말 영광이네요!

옳지! 이제 다 됐군!

POLICE

오공이 드래곤 볼 찾는 거 도와주러 갔다올게—!

근데 어디 가니?

내 책상 위에 있을 거야.

호오! 또 가니?
이번에
7개 다 모아서,
멋진 여자를
나한테 보내다오!

부부 두 분이
똑같아,
똑같아!

CAPSULE

그럼
저쪽이야!

자! 우선
남동쪽으로
약 8천km!

??

85
POLICE

엥!?

그럼 난
작아질게.

휘융

근두운,
이리
와!!

휘잉

……

그래, 간다!

렛츠 고!

왁!!

AC POLICE

부앙!

부자들이 하는 행동은 이해가 안 돼….

나도 렛츠 고!

레드리본 군이 오공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쫓아나선 한가한 부르마…. 이들 둘 앞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휘

…응

내 캡슐이랑 잘못 가져가 버렸어….

부르마 녀석….

저— 죄송합니다.

당신, 경찰관이 신호도 안지켜!

다음은, 제70화 부르마의 대 실패!!


후아아—!
휘—
레드리본 군이 드래곤 볼을 노리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오공을 따라나선 부르마. 두 사람 앞엔 당연히 새로운 위기가…!!
꽤 머네…. 바다가 나왔어!
조금 더 가야 돼!
이번게 할아버지의 형상볼인 사성구라면 좋겠는데….
레드리본 군 본부….

어, 엄청난 스피드야…! 저 꼬마놈…!!

그 꼬마는 아무래도 블루 장군이 담당하고 있는 드래곤 볼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삐삐

삐삐

옛!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발견되는 즉시 해치우도록 블루 장군에게 연락해!

레드 사령관이 엄청 화나셨다구!

뭣들 하는 거야! 아직 발견 못했단 말야!?

블루 장군이 통솔하는 블루 중대 임시 캠프.

RED RIBON

살살이 뒤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깊은 바다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RR

야, 임마! 너!

옛?

지금 코딱지 후비고 있었지?

자, 잘못 했습니다! 그만 저도 모르게…!

탕

블루 장군님,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리 한번 경쾌하군….

아휴, 불결해! 즉각 처형해!

히이익! 한번만 살려 주세요!

전에 말씀드린 그 꼬마가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나 블루 장군한테 오고 있다구?

뭐라고?

일이 아주 재밌어 졌어.

후후 후….

그들은 정말 레드리본 군의 수치다.

실버 군대와 화이트 군대는 그 녀석에게 전멸됐다고 합니다!

드래곤 볼은 이 밑의 근처에 있어!

스톱! 스톱!

우와! 이번엔 더운 곳이다~!

휘

그치만 온통 물뿐이잖아!

뭐? 이 근처라고?

무인도는 아닌가봐. 배가 있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

좋아! 우선 근처 섬에 상륙하자.

난 바다 속에 들어가서 찾아볼게.

아휴, 답답해 죽을 뻔했네!

달깍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잠수정을 준비해왔지!

내가 따라온 걸 감사하라구!

호호호! 그렇게 원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


왜, 왜 이거 하나밖에 없지?
잉!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 하나 속엔 뭐가 들어있어?
예감이 이상하거든….


잘못 가져와 버렸어….


휘익


이빨 한번 믿어보자 …!
딸깍


그…, 글쎄….
여외도 있으니까.
도움이 캡슐인 모르잖


BOM!
펄럭
펄럭
DINK
SUKI

아빤 정말…! 이제 다신 믿나 봐라!

어린애는 보면 안 돼!

이상하다? 얘들, 목욕탕도 아닌데 왜 다 벗었지…?

휘 … 웅

이 근처였나?

역시 내가 헤엄쳐 들어가는 게 낫겠어.

하아! 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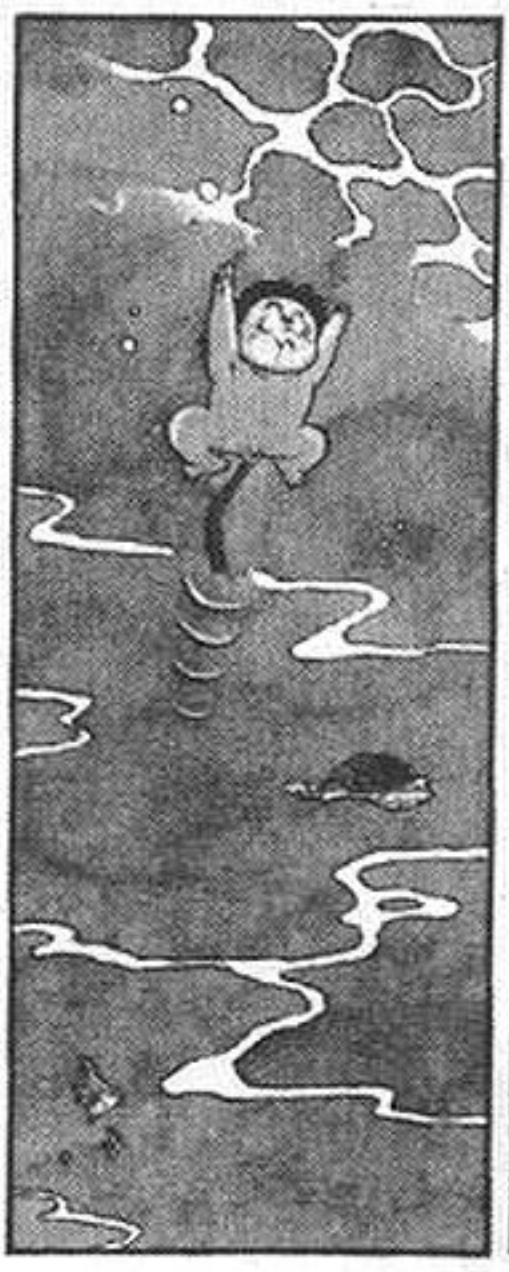
으랏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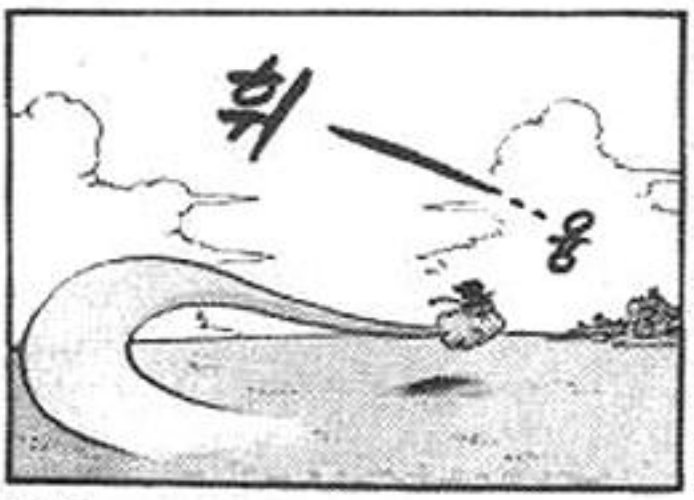

빠앙


우뷰부
부…!


빠앙


푸하!!!
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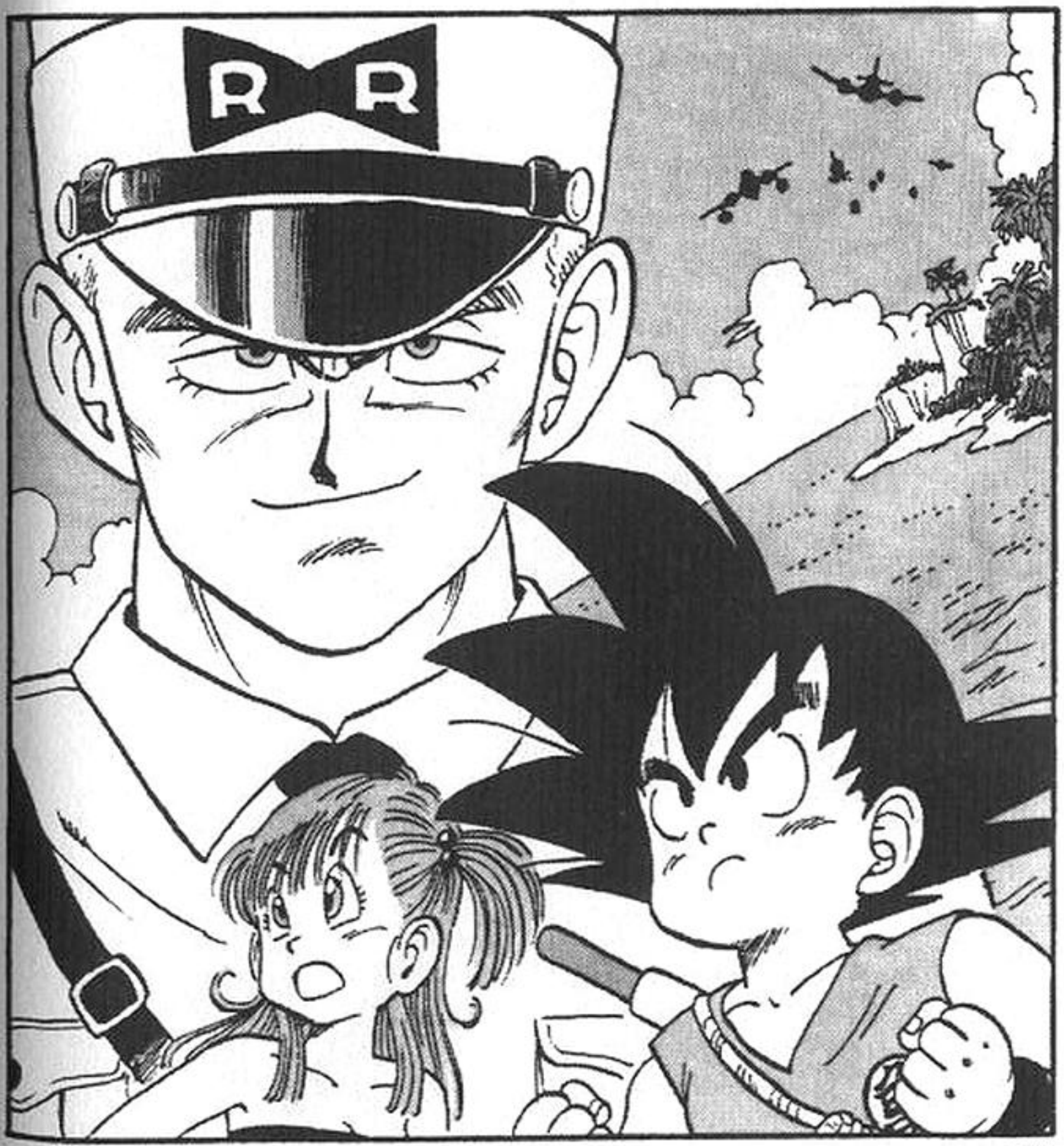

휘

—광고 타임—

다가오는 블루 장군!

드래곤 볼의 운명은 과연!?

제7권 대인기 발매중!



얘가 어딜 갔지?

어랏?

야, 부르마! 바다란 게 무지무지 깊은데?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부아아앙····

저건 뭐야···?

어멋?

분명 캡슐 정도는 팔고 있을 거야.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으니까···.

야—호!!

이봐요!!

두두두두…!

으악! 왜 이러는 거야~!!

두두두두…!!

으아악!!


부아아--앙
으헥!
여자다!!
엇
그 꼬마
아
잖아
대체 뭐야! 하마터면 죽을 뻔 했잖아!
이거 미안해! 그만 사람을 잘못보고 착각을….
캡슐? 이 섬은 원래 무인도라서 그런 거 안 팔아!
그런데 이 섬에
캡슐 파는 곳
어딘지 알아
그건 그렇고, 아가씨 정말 귀엽군!
헤헤!
어머! 그걸 이제 아셨나?
우리들 하고 재밌는 놀이 하며 놀까?
엥!? 재밌는 놀이!?

재밌는 놀이하며 놀자는 건….

DDR하자는 것도 아닐 테고…!

저…, 설마 소년 만화에서 하면 안 되는, 무천도사 할아버지처럼 야한 행동을 하자는 건 아니겠지…?

바앙

당연한 걸 갖고!

끼아악! 살려줘, 오공! 치한이다—!!

23 바야앙

어라? 저기 있네.

뭘 하고 있는 거야, 쟤.

쉬융

못말리는 애라니까.

쉬융

헤헤헷!

쉬익

엉!?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녀석들 나쁜 놈들이야?

부르마!

앗!

그래! 빨리 혼내줘!

잡아랏!!

그 꼬마 녀석이다!

나쁜 놈들!

위험 하잖아!!

두두두..!!


너희들도 레드리본 군 녀석들이지?
엑!?
여의봉아, 커져라!
크악!
으엑!!

나 멋지지?

콰—앙쾅—

샤

할아버지라면 분명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을 갖고 있을 거야.

여기에서 거북신선 할아버지 집까지 별로 멀지 않잖아!

저기, 있잖아! 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자…, 잠깐…. 오공!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겨우 치한한테….

헤헤! 나도 가끔은 머리 좋지?

거북신선….

거북신선이란 말이지….

다음은, 제71화 거북하우스를 찾아라!!

그러나 깊은 바다 속을
들어가기 위해선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은 근처 섬에 살고 있는
무천도사의 집으로 상의하러
가게 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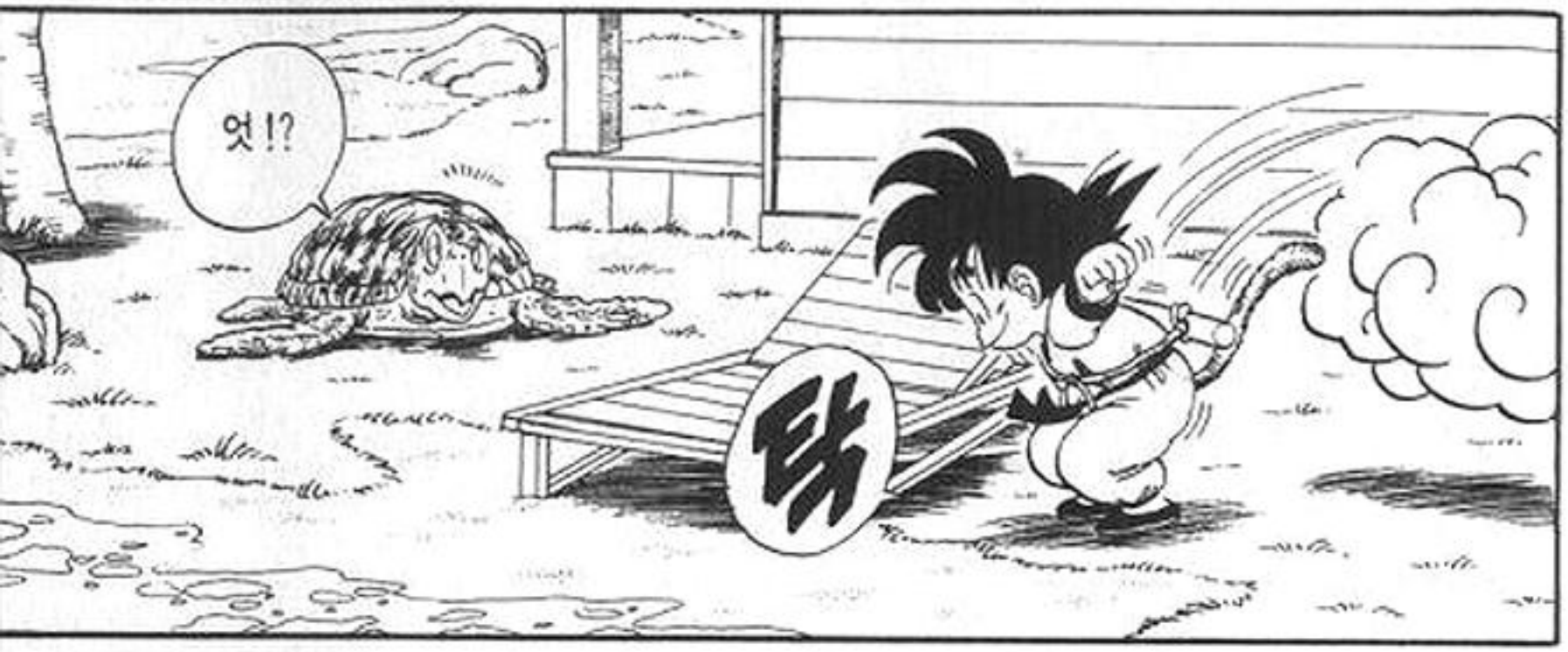
3번째의
드래곤 볼은
바다 밑에
있다는 걸
알았다.

보인다,
보여!

아!

거북신선
말이지….
그 변태 할아버지한테
절대 부탁 같은 거
하지 않으려
했는데….

휘웅


엇!?
탁


할아버지 있어?
거북선이 아니라 거북인데요…


아—! 거북선이잖아! 정말 오랜만이야! 돌아와 있었구나!
앗! 오공 씨! 어서 오세요! 그 동안 잘 지냈어요?


오공이라고?
뭣?
끄억…


무천도사 님! 오공도련님 이십니다—!
예. 계십니다.


헤헤! 아니, 아직이야!
호오! 벌써 손오반의 형상구인 드래곤 볼을 찾았단 말이냐?


나한테 무슨 볼 일 이라도?
부르마! 이젠 나와서 설명해!
엥!?
뽕
아…, 안녕….
엉!?
쑤-우
KAME
으왁! 뭐, 뭐냐?
지, 지금 어떻게 한 거지?
이거야….
작아질 수도 있고, 원래대로 커질 수도 있지….
호오~! 그것 참 재밌네….
천재인 내가 만든 거니까 굉장하지?
부르마! 설명, 설명!
아! 그래…!
저…, 저…, 무천도사 님, 잠수함 갖고 있어…?
잠깐만 빌릴 수 없을까…?

그랬군! 그야 빌려줄 수도 있지만….

땡큐~!

조건 없이 빌려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드래곤 볼이 아주아주 깊은 바다 속에 있어서, 나도 들어가질 못하겠거든.

잠수함…? 갖고 있긴 하다만, 그건 뭐 하게?

KAME

나에게 주라!

그 작아지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그럼 그렇지!

다만…, 저기….

……

휴우—! 다행이다. 그 전처럼 야한 것을 해달라면 어쩌나 했네. 할아버지, 사람 많이 달라졌어!

?

엑? 이걸?

후후훗! 땡큐! 땡큐!

이제 잠수함 캡슐을 줘.

이게 없으면 곤란하긴 하지만….

뭐, 줘 버리자!

레드리본 군 본부….

잠수함은 마침 크리링하고 런치가 쇼핑하러 타고 갔으니까 잠시 기다려. 금방 올 거야.

음….

정말 알 수 없는 녀석이야….

어… 어떻게 된 거야!? 꼬마가 왜 드래곤 볼을 안 찾고 저런 곳에 가 있지?



저런 꼬마가 우리들보다 더 좋은 레이더를 만든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마 실력있는 과학자하고 손을 잡은 게 분명할 겁니다.

전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녀석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정찰대를 파견해서 적의 아지트를 찾으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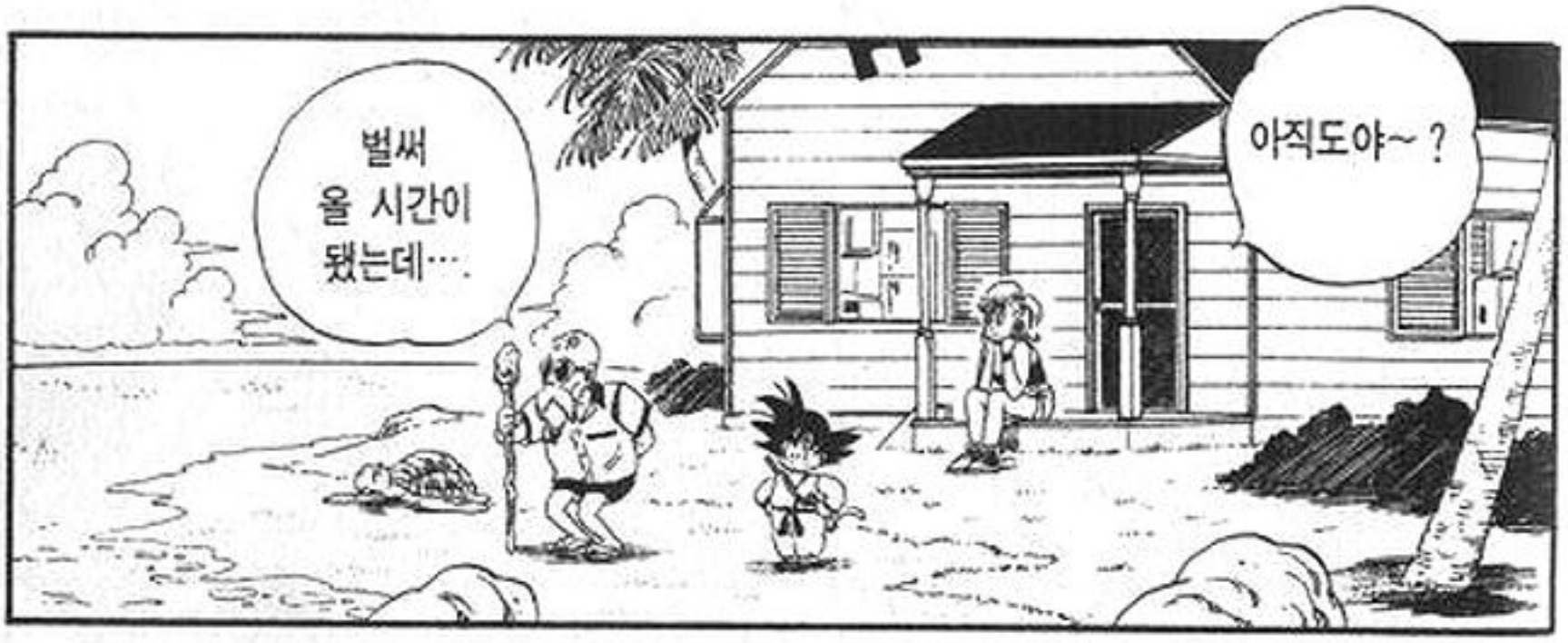
빨리 블루 장군에게 연락해라!

예! 틀림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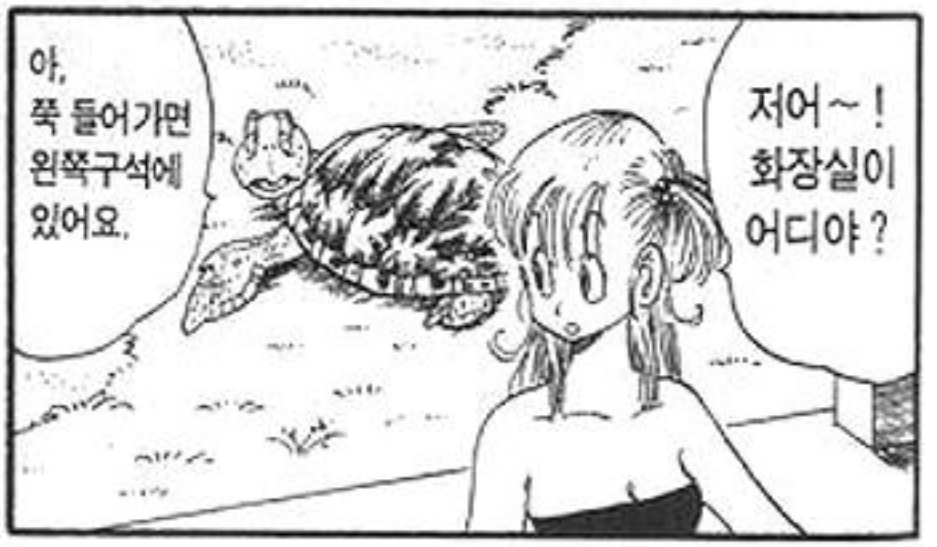
옴…. 그래! 그럼 지금 있는 데가 그들의 본거지란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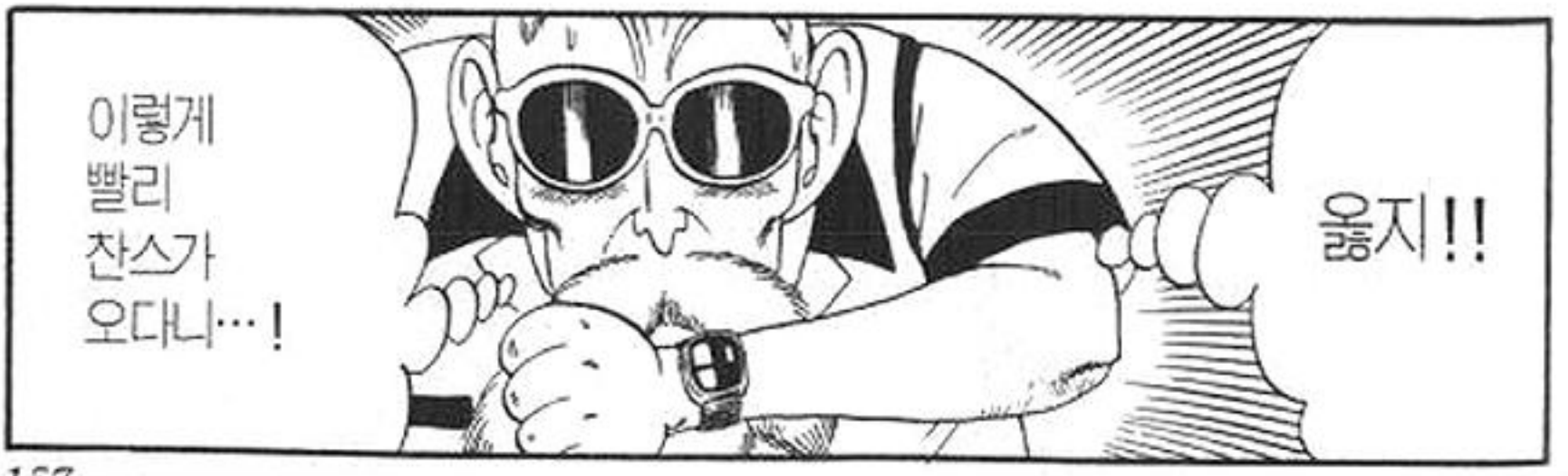

뭐라고?
알겠다!
즉시
그곳으로
정찰대를
보내겠다!
음…!
그…
그래….


블루 부대 임시 기지
RR


벌써
올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야~?


화장실…?


아,
쭉 들어가면
왼쪽구석에
있어요.
저어~!
화장실이
어디야?


이렇게
빨리
찬스가
오다니…!
옳지!!

……

딸깍

TV라도 좀 볼까?

으랏차차! 아, 따분해!

KAME

헤헤! 됐다!

삭삭삭

에…. 여기하고 여길 같이 누른다고 했지….

두근 두근..

KAME

다다다다~~

빨리! 빨리!

쏘옥…

살금 살금

두근 두근

BATH ROOM

좋아. 간다!

KAME

하아 하아
히프가 보이겠지….
됐어…! 우선….
옷차!
살짝
오우! 굳 타임! 지금부터 팬티를 내리고….
엇?
살짝
아~! 작아져서 정말 행복해!
으음
퐁당
으왓!?
주르륵
버…. 벌써 끝났단 말야?
이… 이런! 설마…!
딸깍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엉?

쏴

잘잘잘…

꼬르륵 꼬르륵

꺅!

응차차…!

끼각 끼각

응, 아직.

아직 안 왔어?

탁

엉?

제… 제길….

푸우!

바다에 가서 세탁해야 겠어….

냄새 죽여 준다…!

저기 봐!

아, 저기 뭐가 오는데?

몰라! 니가 참견하지 마!

우천도사 님! 안에서 TV 본다고 하더니 어쩌다 그런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셨어요?



휘유우우…웅
앗! 크리링 씨하고 런치 씨예요!
어머!
오공 이잖아!
헤헤! 안녕?
잘 있었어?
음! 꽤 좋은 잠수함 이잖아.
안녕하세요? 팬티 씨였던가?
부르마야, 부르마!
왜 이리 늦었지?
글쎄요, 시내에서 런치가 변신해서 큰 소동이 났지 뭐예요?
헤헤! 그만 재채기가…
???
근데 오공!
여긴 웬일이야?

정찰대! 어찌 됐나?

워, 발견한 거 없어?

아뇨, 아직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처에는 섬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곧 발견될 겁니다!

그 근처 바다라면 찾는 김에 해적선의 보물도 찾아보자!

해적?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아~! 그랬구나….

그래서 잠수함을….

보물이 있다는 게 그 근처라고 했죠?

그래, 그래!

옛날에 그 일대를 휘젓고 다니던 해적이 모아둔 보물이 그 바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더구나.

정말!? 위험할 지도 모르는데!

재밌겠다~! 나도 따라 갈까?

와! 보물! 너무 멋져!

보물이라…. 그걸 찾는 것도 멋있겠는데!

휘이이이…

KAME HOUSE

가서 오공을 도와줘라.

으음, 그래!

무천 도사님! 갔다 와도 괜찮습니까?

꼭 찾아와—!

그럼 다녀 올게요!

몸조심 하세요!

슈아——— 앙

CAPSULE

와~! 이게 정말!?

아참! 큰일 났다!

두 개의 드래곤 볼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왔어!!

근데 이게 비행기란 건가? 우린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괜찮아! 이건 바다 속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앗!

휘유———…웅

RED RIBBON 51

괜찮아. 무천도사 님이 잘 맡아줄 거니까.

하긴, 그렇구나.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그들이 온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적의 기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루 장군님! 비행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아! 그 꼬마가 분명합니다!

옛!

줌업 모니터로 누가 있나 빨리 확인해봐!

작은 섬에 집이 있습니다! 위치는 ESA 7024 지점!!

있다! 역시 있습니다!

노인이라….

훗후후! 바로 그 굉장한 레이더를 만든 박사란 말이지….

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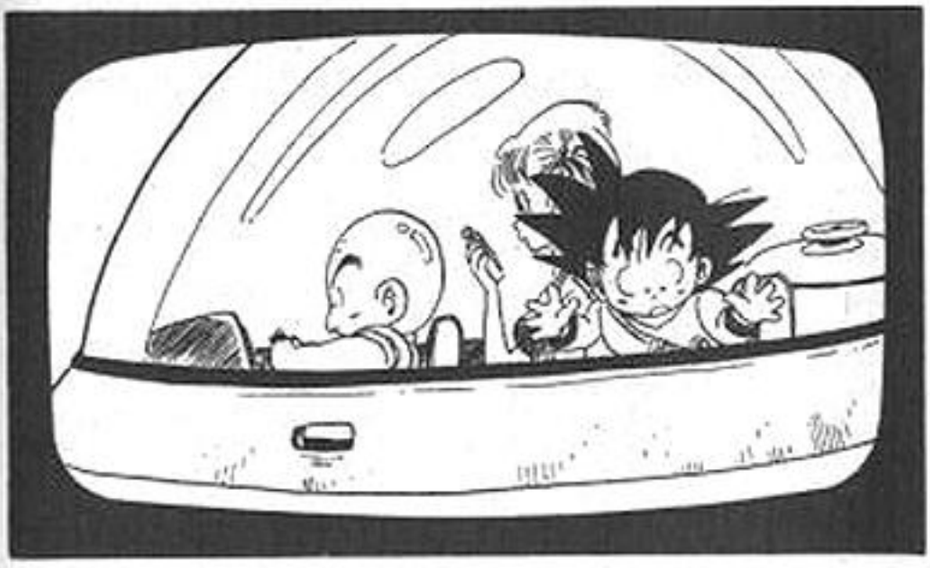
저어…, 런치 씨! 화장실 안 가요?

여자 한 명과 거북 한 마리, 그리고 노인이 한 명입니다! 그 외엔 보이지 않습니다!

?

다음은, 제72화 블루 장군 공격 개시


그아아---앙
82 CAPSULE
응,
이 근처다!
자, 바다
속으로
잠수!




휘이앙···


RR
R
ED RIBON


첨벙—

그대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후후훗! 역시 그 꼬마군.

이번에는 3인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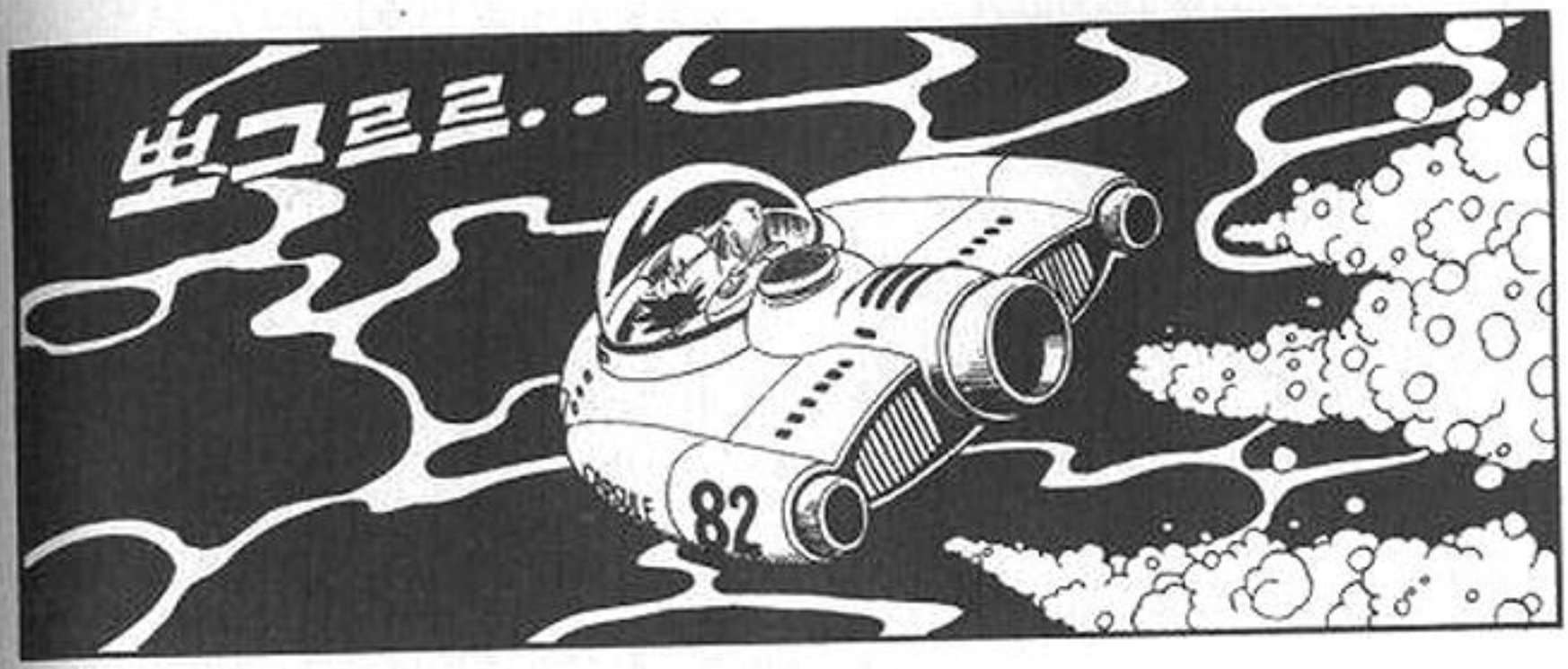
RIBON

블루 장군님! 본부 레이더에 의하면 소년의 드래곤 볼은 역시 그 섬에 두고온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그 섬이 적의 기지란 말이지…. 호호호! 내가 전멸시켜주마.

잘 들어! 부대를 둘로 나눈다! 내가 지휘하는 A대는 꼬마 녀석을, 네가 지휘하는 B대는 적의 기지를 공격해라! 알겠나?

옛!


뽀그르르..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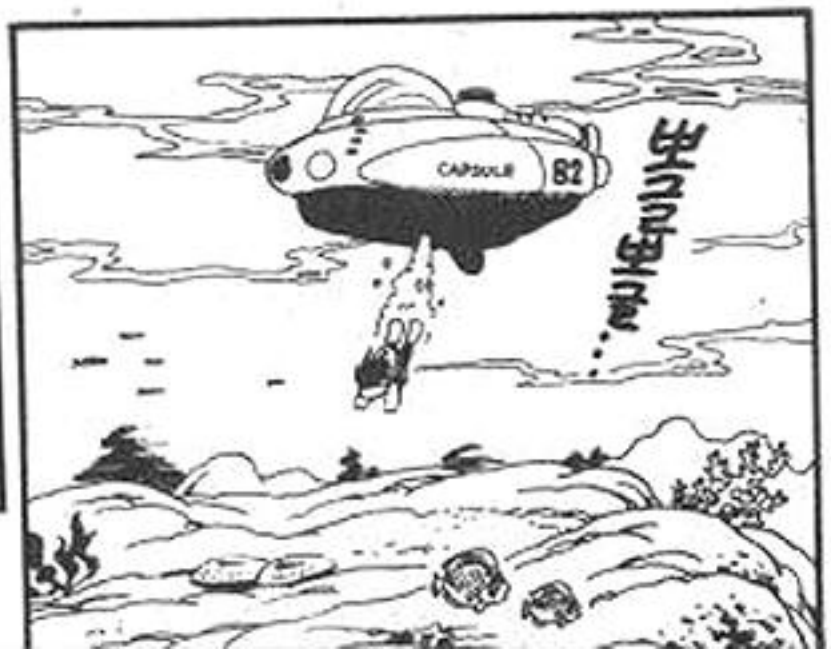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CAPSULE
82


이 바로 아래!
여기야, 여기!


정말 이라니까.
이걸 쓰면 정말 물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단 말이지?


내가 나가서 찾아 볼게.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여긴걸?


우와! 말도 할 수 있네!
잘 찾아봐!


CAPSULE
82
뽀그르르..

어?

야, 이쪽에 꽤 깊은 골짜기가 있네.

여기로 들어가 버린 거 아냐!?

아무 데도 없는걸?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가 옆에서 조사해줄게.

뿌르르르!

잠깐만 기다려!

네가 할아버지한테 준 그 작아지게 하는 기계를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 잠깐만!

저기,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

너무 좁아서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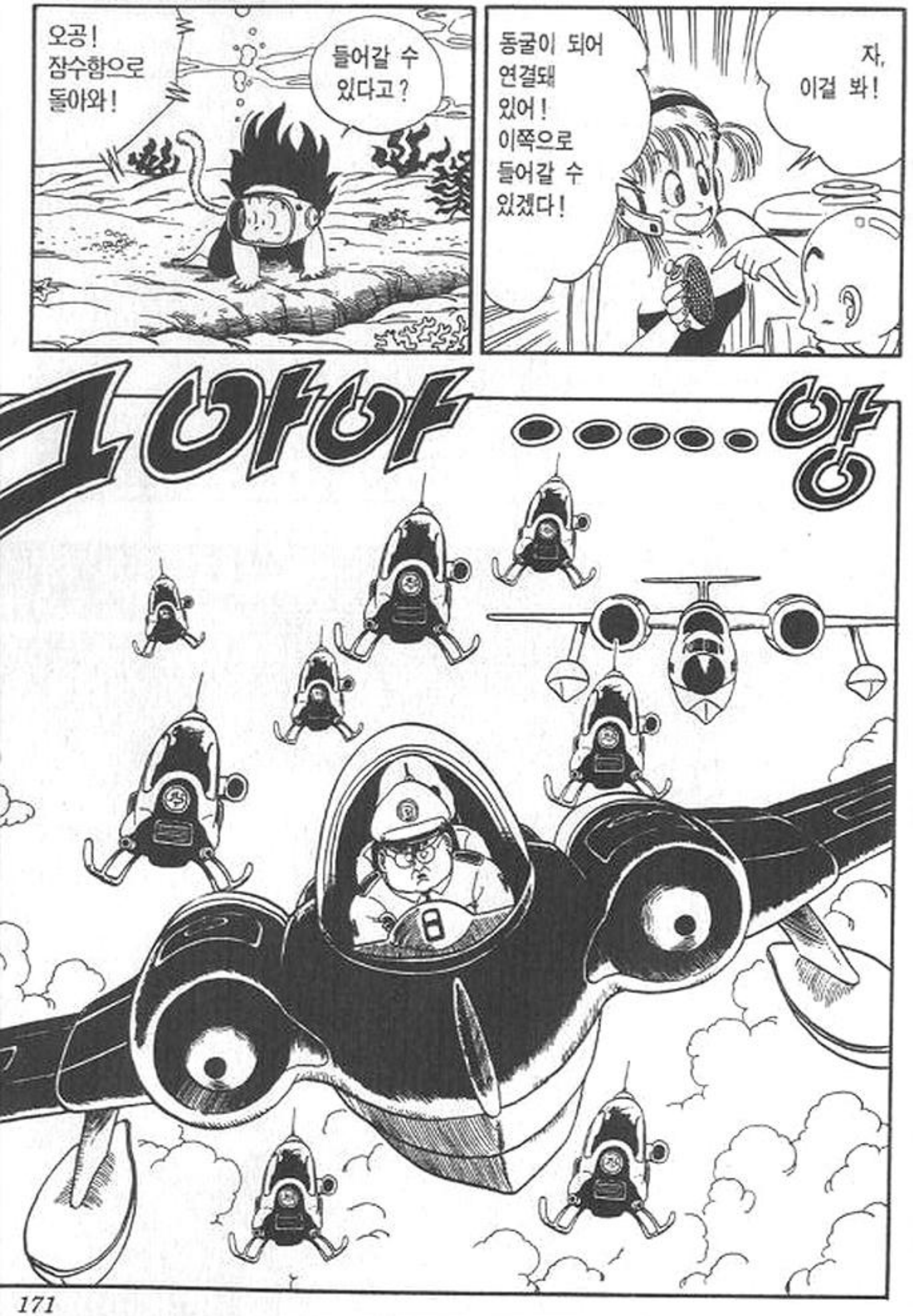
옆에서 보니 이 근처네. 우와-! 굉장히 깊어-!

단면을 보니까 구멍이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왜 그래?

레이더를 전환해서 좀더 전체적으로 보자.

이건….


오공! 잠수함으로 돌아와!
들어갈 수 있다고?
동굴이 되어 연결돼 있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자, 이걸 봐!
그아아 ……앙

뭐,
늙은이하고
여자밖에
없는 것 같아!
별 거 아냐!

그 적의
기지엔
몇 명이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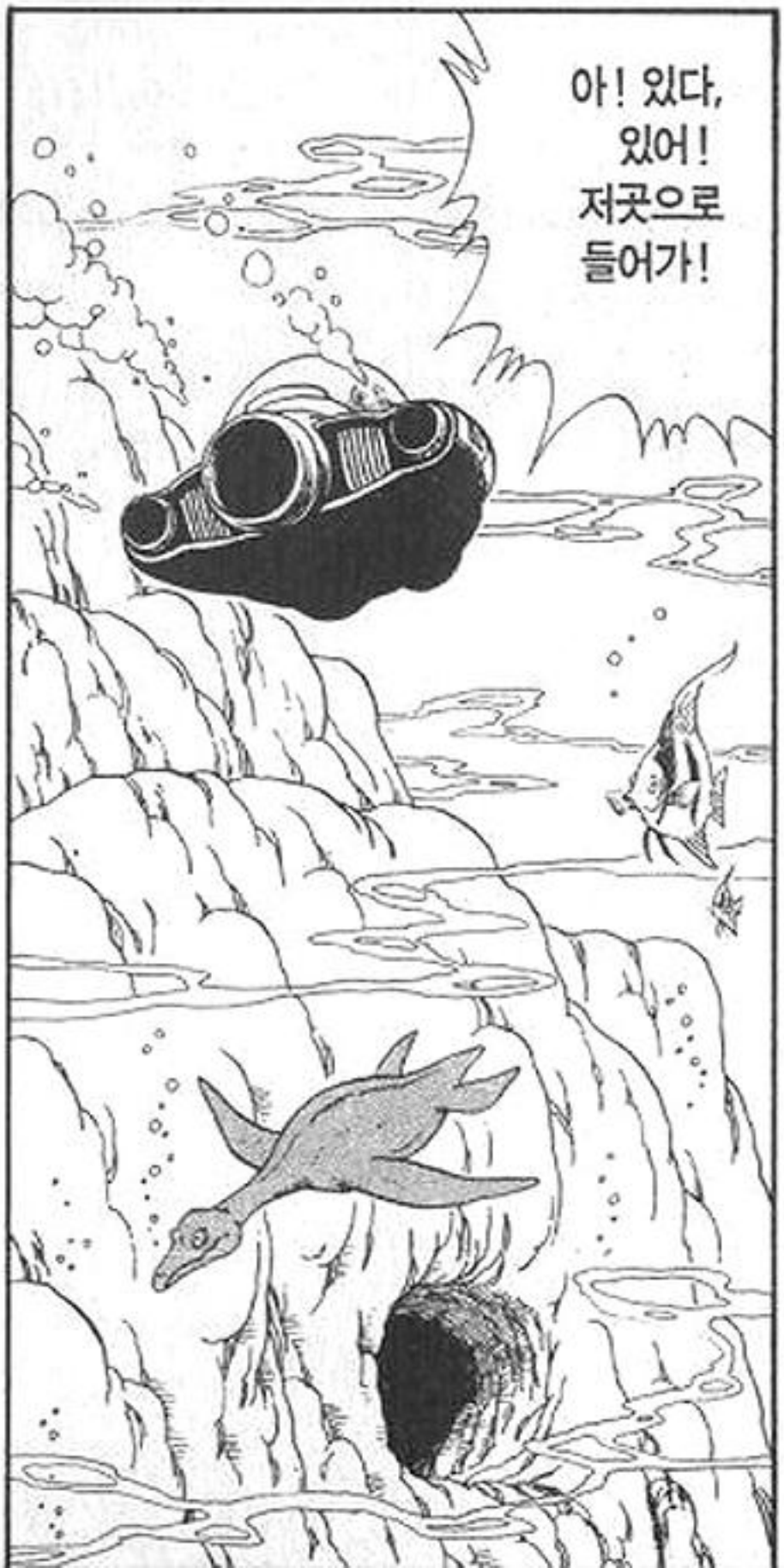
적의
잠수함에
접근
했습니다!

RED RIBON

R R

슈아앙!!


녀석들이 드래곤 볼을 발견할 때까지….
아니, 잠깐 기다려봐!
공격을 개시할까요?


아! 있다, 있어! 저곳으로 들어가!


좀더 똑바로…. 조금만 더….
PULL PULL

드래곤 볼이 저기 있단 말이지?

블루 장군님! 아무래도 적들이 저 동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뢰 발사!!

좋아! 공격 개시!

RED RIBBON

펑펑펑—


팡팡
파앙
퍼엉
으악!!
뭐, 뭐냐?
빗나갔습니다!
멍청한 놈들!!
빨리 다음 어뢰를 준비해!
어, 어떻게 된 거야!?
봐라! 저 잠수함이 우릴 쐈어!
또 레드 리본 군인가 보군.
끈질긴 녀석들!
뭐!?

그래서
내가 방해가
되니까
항상 싸움을
걸어오는 거지.

그 녀석들도
드래곤 볼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었어?

자, 잠깐!
레드리본
군이라면
그 전의
그… !?

세계 최악의 군대인
레드리본 군이 널
노리고 있단 말야?

아니,
뭐라고?

빨리
동굴로
숨자!

82

바아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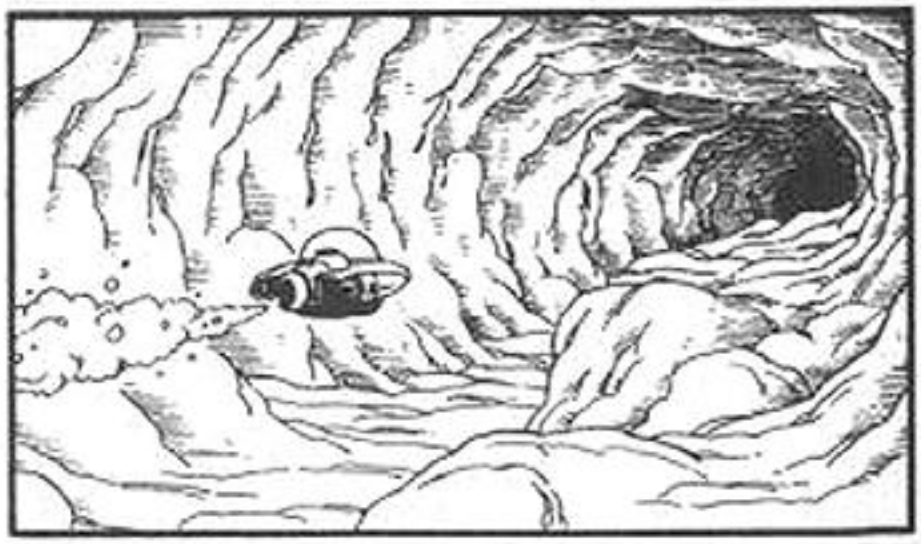
왁!
또 쐈어!

부아앙——…

옛!
사격수는 당장 사형시켜!
빨리 추격해!
또 빗나갔습니다! 동굴로 도망칩니다!

오공! 왜 레드리본 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줬잖아!
무,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이번에는 명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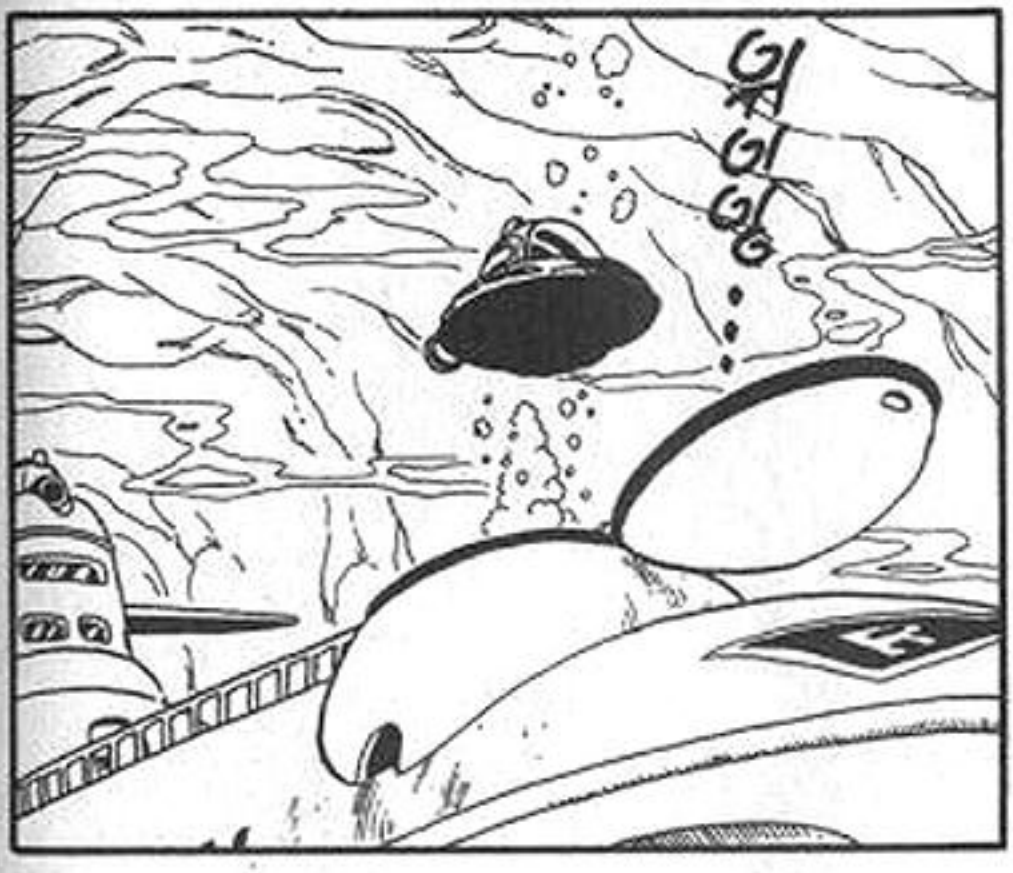


구멍이 좁아지고 있어!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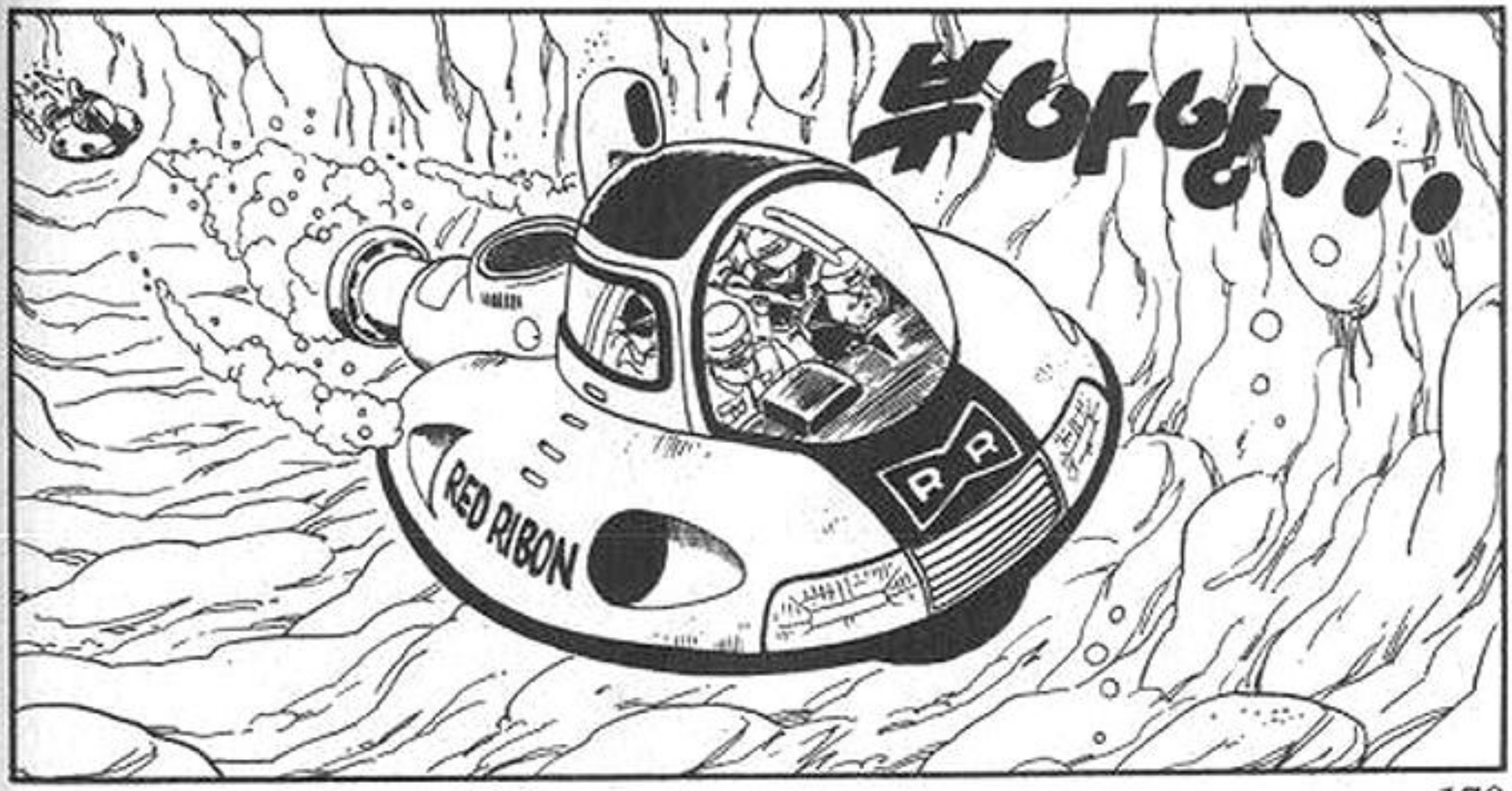





야호!!
녀석들의 잠수함은 너무 커서 더이상 들어올 수 없을 거야!
CAPSULE


R


내가 직접 가겠다!
소형 잠수함을 준비해라!
R R


RED RIBON
R R

한편 거북하우스는….

그아아 …… 양

KAME HOUSE

어랏?

무엇이 당가?

뭔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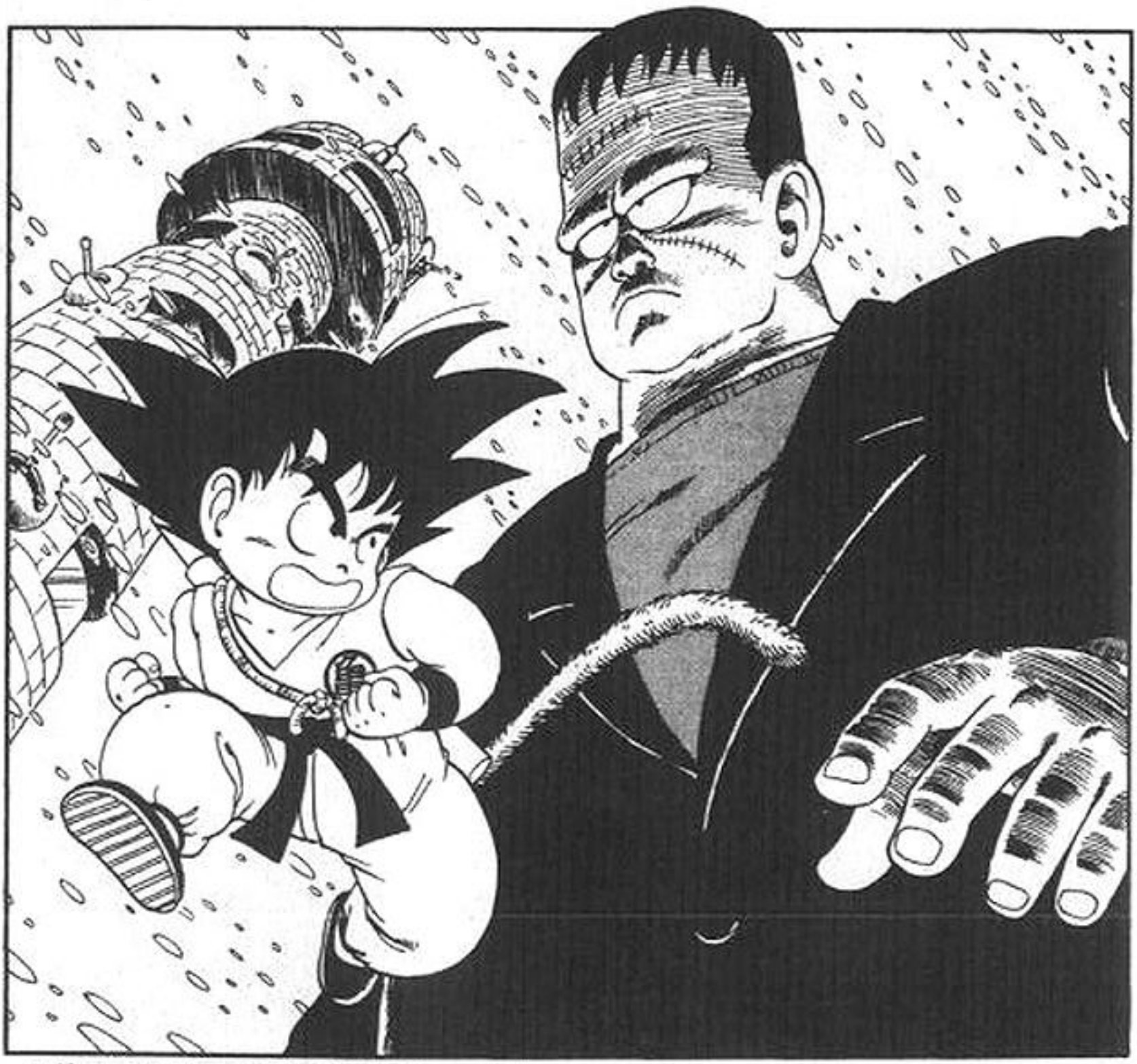
부아앙~

됐다, 체포해라!!

얼레?

표지 페이지 대특집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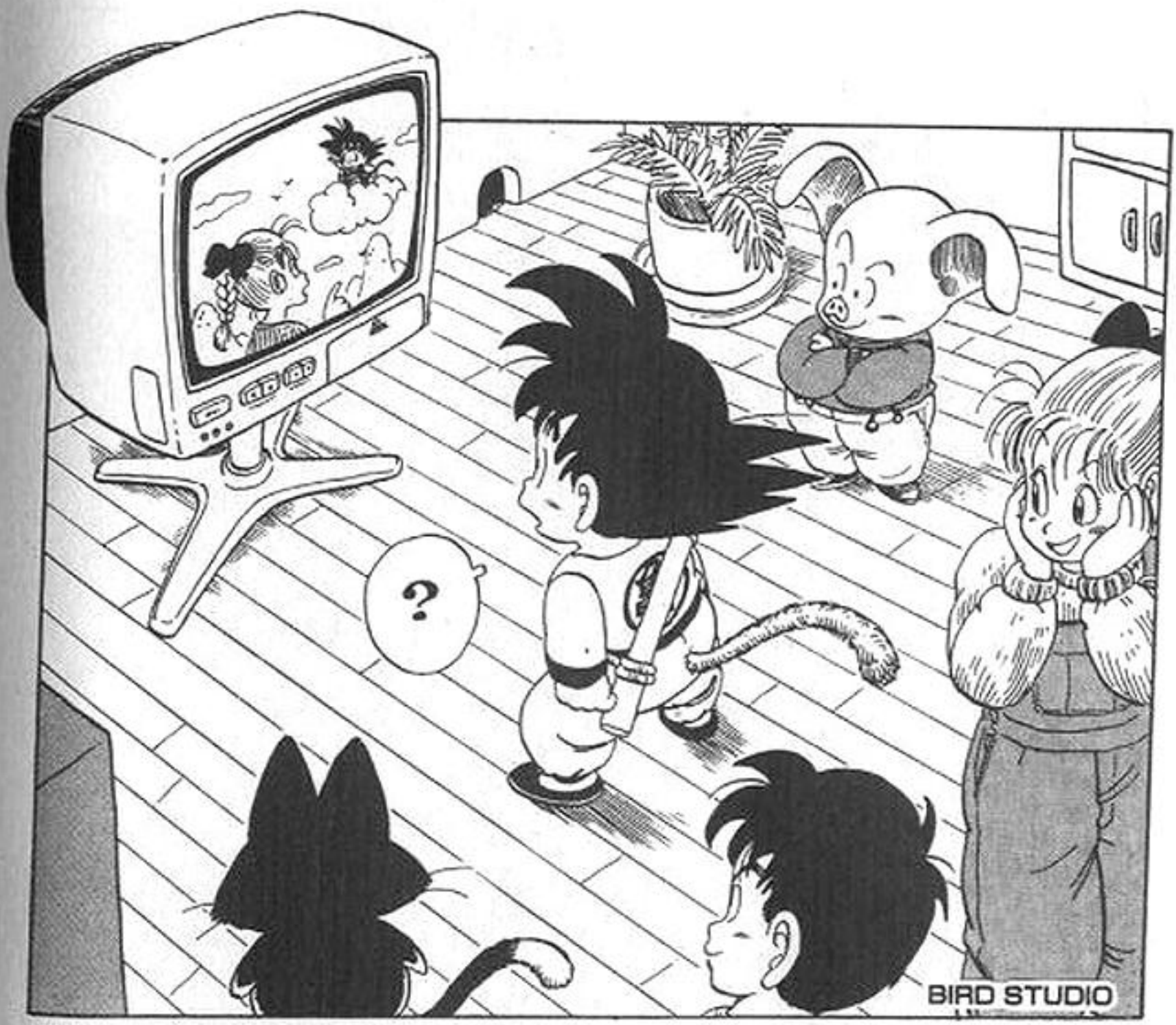
인기가 너무 좋아서 또다시 실었습니다!
표지 페이지 대특집 제5탄이야요!! 이번에도 다시,
점프에 실렸던 그 그림을 완전히 그대로 올렸어요.
그럼 대망의 시작~ !!



제63화 인조인간 8호

鳥山明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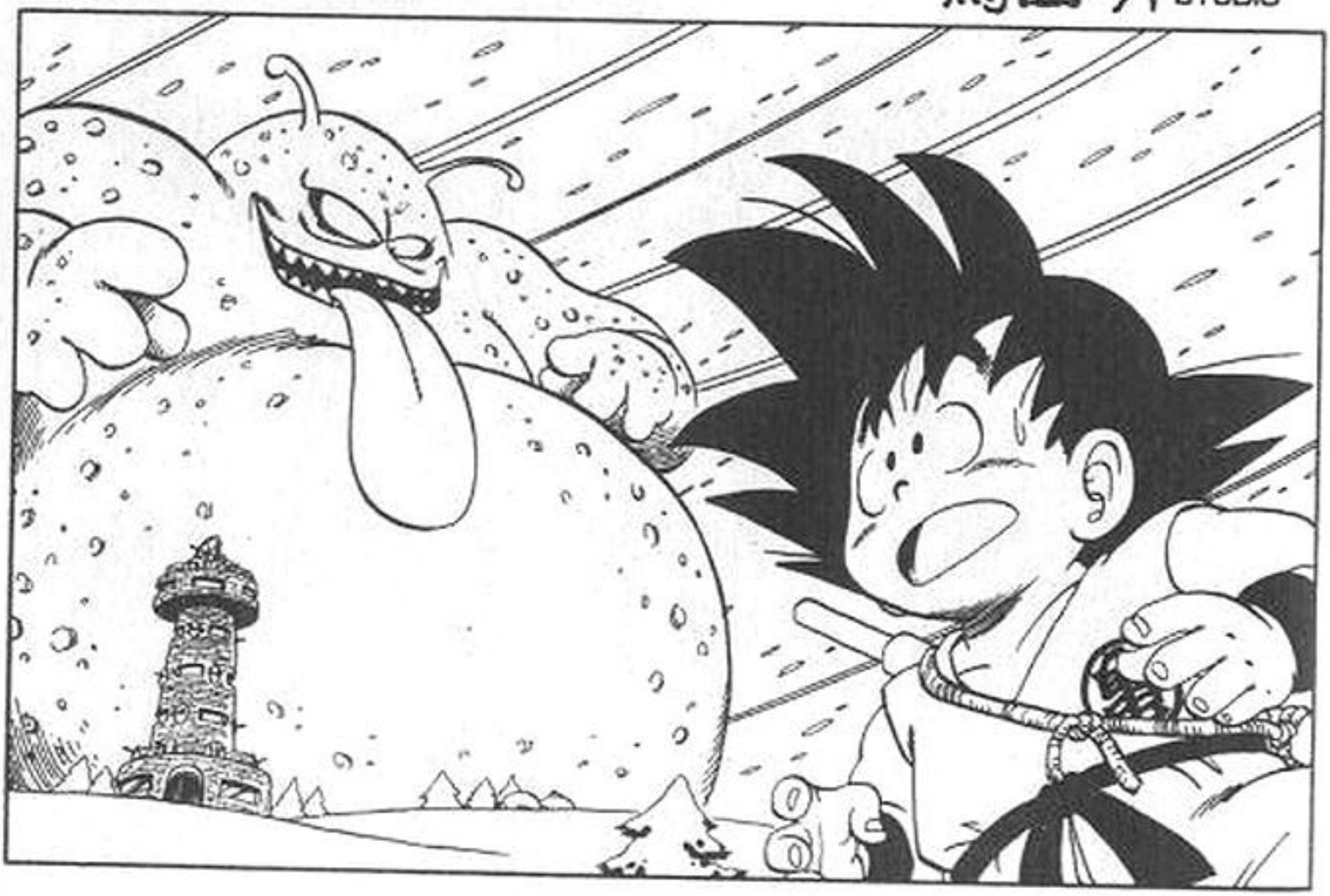
제64화 5층 전율의 괴물!!

鳥山明

DRAGON BALL

제65화 포동이 공략법

鳥山明 BIRD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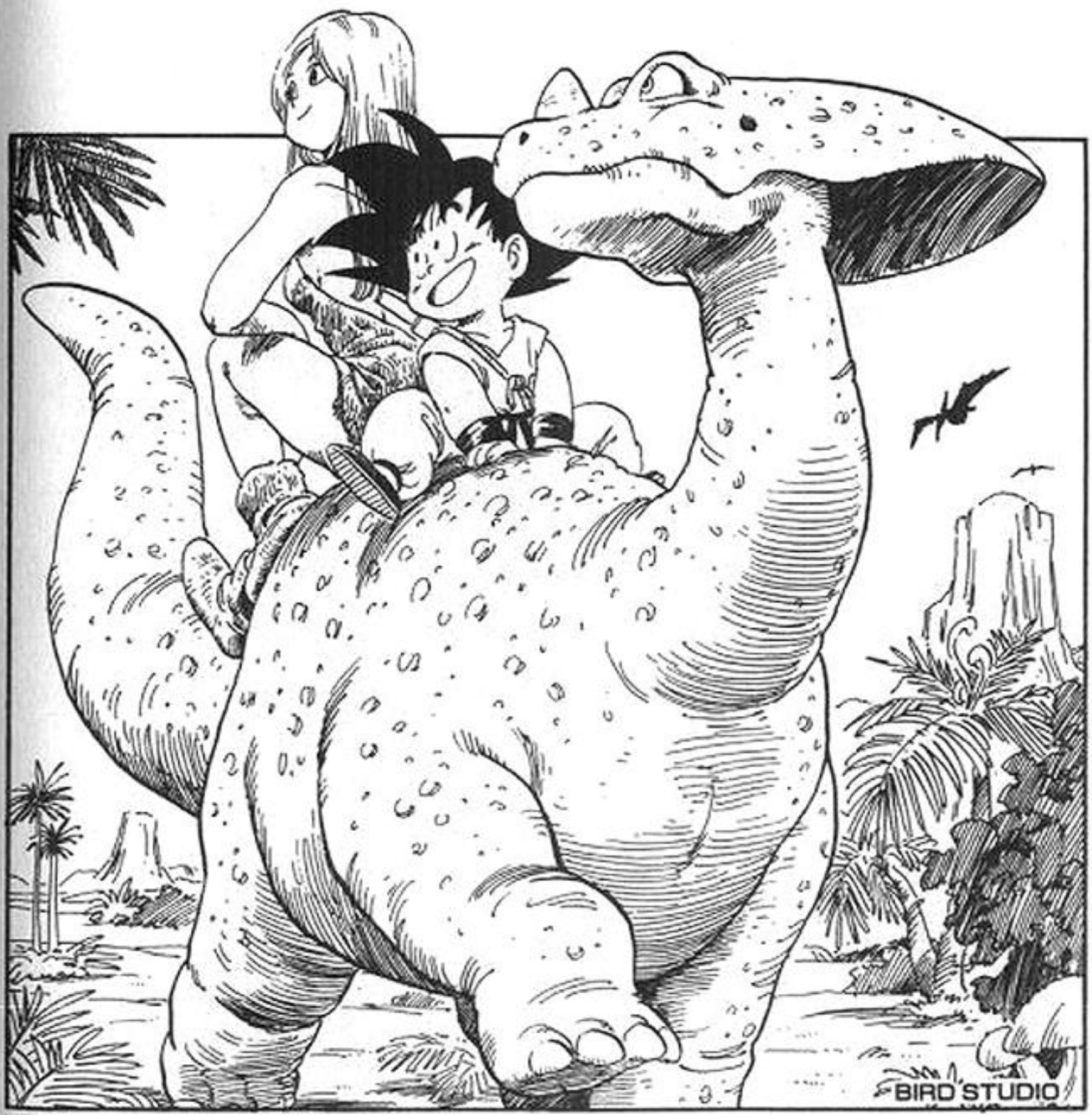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DRAGON BALL



제67화 서쪽으로….

鳥山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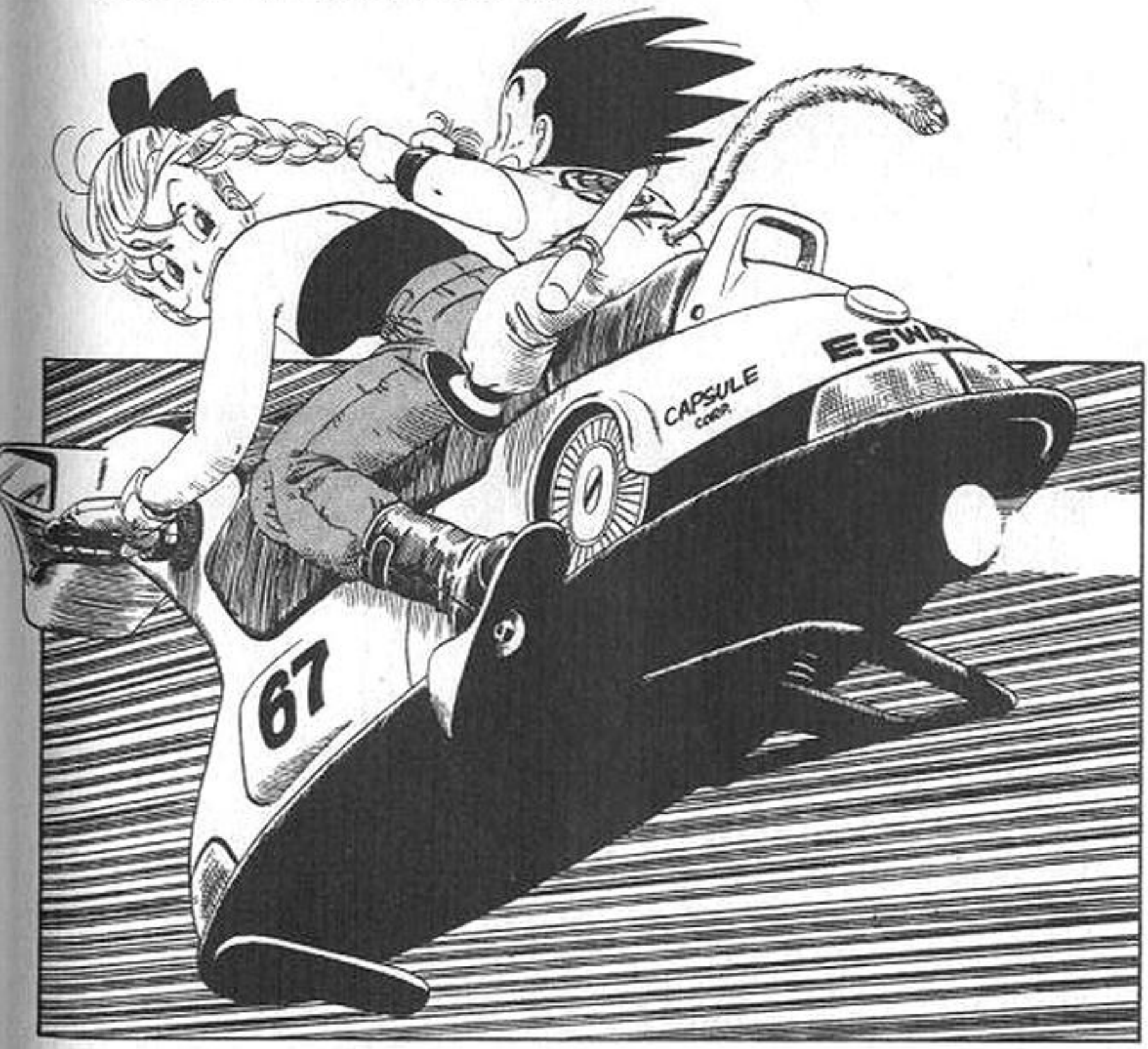
DRAGON BALL

제68화 서쪽 도시의 부르마네 집

鳥山明

DRAGON BALL

제69화 부르마와 오공 Part 2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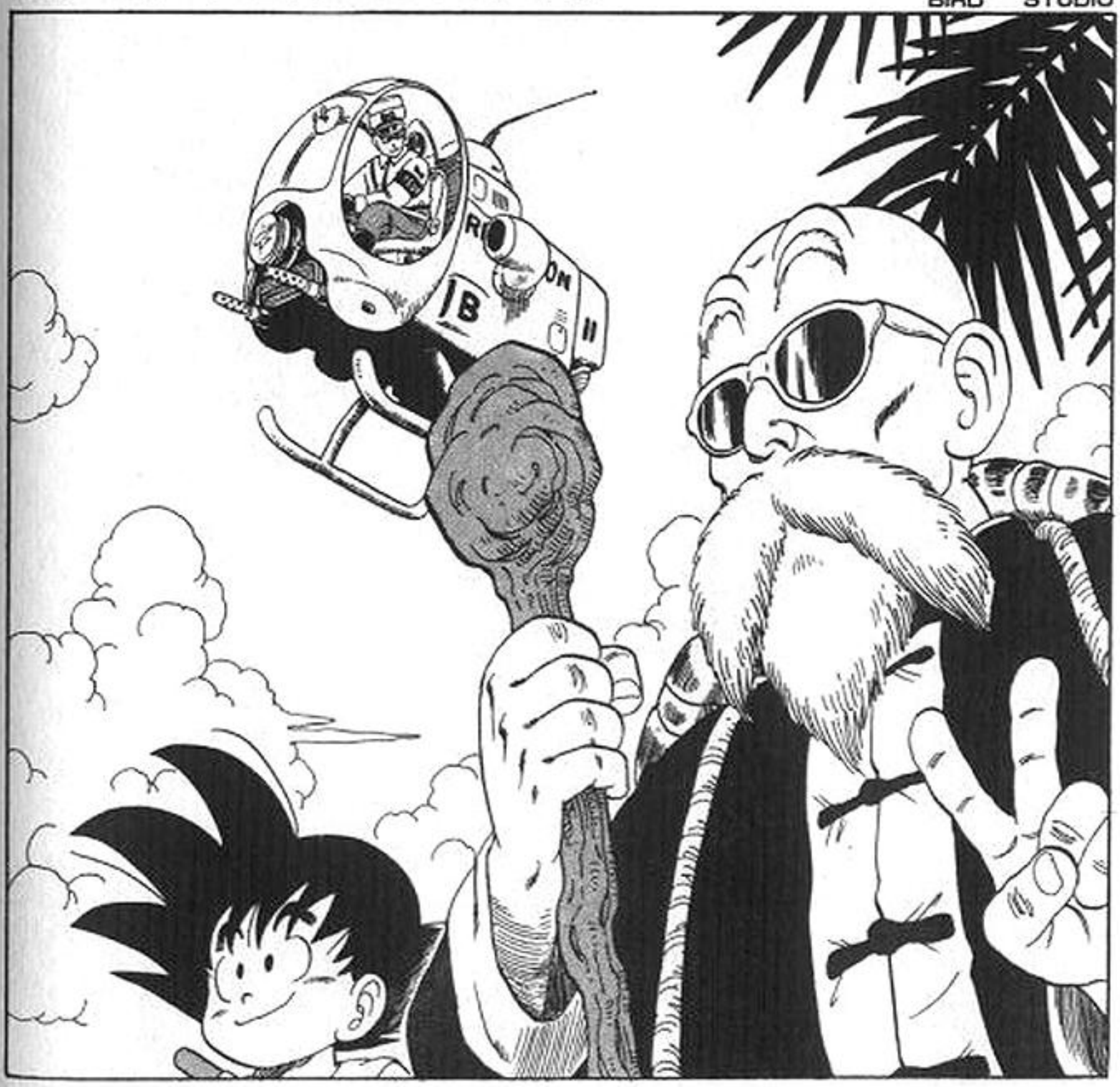


제70화
부르마의 대 실패

DRAGON BALL

제71화 거북하우스를 찾아라!!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72화
블루 장군 공격 개시



鳥山明
BIRD STUDIO

IQ JUMP COMICS

DRAGON BALL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scanned by raprnb